

GROWING

2022 동시대미감전
<식물키우기>



PLANTS



깊이보기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문화의 양조장, 베를린



예술가의 작업실
연희공방 음마강쟁 대표 음대진

06

07



THEME STORY

아트뷰의 시각으로 동시대의 문화예술을 밀도 있게 다룹니다. 보다 깊고 보다 넓게 확장된 세계관으로 진입하는 문을 지금, 열어보세요.



VIEW

작가의 프레임 속 예술 세계가 펼쳐집니다. 때로는 무대 위 재해석된 움직임으로, 때로는 새하얀 캔버스 위에 구축된 가상의 공간으로 변주합니다. 낯선 감각으로 공간을 유영합니다.



ART CURATOR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창조적 여정은 우리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흥미로운 순간들을 마주하도록 이끕니다.



BEYOND SEONGNAM

지역예술의 새로운 정통성을 구축하고, 성남 그 너머의 본질적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기술과 과학, 과거와 현재, 예술가와 예술가 사이 경계의 미학을 발견합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프라노, 상드린 피오의 첫 내한 공연!



상드린 피오 & 에릭 르 사주

CHIMÈRE

SANDRINE PIAU & ERIC LE SAGE

{ 뢰베 / 슈만 / 드뷔시 / 볼프 / 폴랑크 / 프레빈 }

2022.6.26.SUN 5PM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주최 성남문화재단

티켓 R 8만원 | S 6만원 |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문의 031-783-8000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주)인피콘 대표이사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안봉혁/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솔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철쭉회원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우문식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김태호/김경자 남궁원/김순미 남선우/정정섭
마희자/조득환

박미경/강대식

백중훈/지용애

손의명/손외자
故송 자/탁순희

신동화
신상진

오종영/이승희
윤영상/박인영
이경화/이정우
故이성무/김복기

이은하/정인희
이임수/이화자
이정식/고옥주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고모아트옥션 이사

탄천회원
박 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주)씨너스 회장
최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원/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한국수도경영연구원장. 공인회계사
김길복/이상수 (주)중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김동술/민안선 (주)에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레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북극성제일치과원장.

김영수/원종순 전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중현/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김태호/김경자 전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전 총재
마희자/조득환 사진공방 대표

박미경/강대식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중원구 보건소 약사
(주)평화기업 이사

백중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텐츠(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외자 손의명치과 원장 / 한국화가
故송 자/탁순희 전 (주)대교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신상진 (주)유엔젤 제작감독

오종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故이성무/김복기 전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장

이은하/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정식/고옥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故이종덕/김영주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현주/김윤선 메리츠화재 부장 /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솔루션 부사장 / 집코리아 CTO
장형환/김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승설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음악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주)ING생명보험 명예전무

조남주/이규철 미술단체 <線과色> 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최병오/박종길 (재)성남이로문화재단 이사장
패션그룹형지 회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故허 참/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정림 림에이엠시 대표

윤향남 화가
주재근 정효국악문화재단 대표
최은희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까지회원
장미영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 부사장
전동욱

명예회원
신선희 무대미술가.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박지향 부회장 강효주 황광석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020 이메일 mecenat@snart.or.kr

가입 기준	회원 구분	평생회비
법인(단체 포함)	은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1,000만 원 이상
개인	철쭉	500만 원 이상
	이매	(5년)300만 원 이상
	까지	(2년)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부부회원

자유를 갈망하는 숭고한 자들의 기도



G . V E R D I

시칠리아
섬의 I Vesperi
Siciliani
저녁기도

2022.6.18 Sat – 19 Sun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지휘 세바스티안 랑 레싱 | 연출 파비오 체레사 | 무대 티치아노 산티 | 의상 프란체스코 본디 | 안무 마티아 아가티엘로 | 조명 마선영
서선영 김성은 강요섭 국윤중 양준모 최웅조 김대영 유명현 박의현 신성희 조철희 최성범 김석준 이요섭 코리아콥오케스트라 노이오페라코러스 코드공일예술연구소

티켓 R 10만원 S 7만원 A 5만원 B 3만원 문의 성남문화재단 031-783-8000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TEAMLAB BORDERLESS

예술가의 미래

경험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통해 미래적 예술을 선보이는 사상가들이 있다. 그들은 팀랩보더리스teamLab Borderless라는 이름의 아트 그룹으로 귀결되어 흥미로운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 다양한 국적의 건축가, 애니메이션 작가, 컴퓨터 공학자, 교육자, 수학자, 웹디자이너, 로봇 연구가, 비주얼 아티스트, 그리고 여러 분야의 엔지니어들은 함께 활동하며 장르를 초월해 예술적 경험을 창조한다. 허물어진 경험의 경계는 국적과 규정된 모든 정의 또한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기술과 예술, 인간과 자연, 나와 타인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기술과 상상력을 융합해 초월적인 세계관을 형성해 나갔다.

그들이 구축한 예술 세계로 들어가노라면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매순간 변화하는 세계와 맞닥뜨리게 된다. 한 예로, 빛으로 가득 찬 만화경 같은 공간인 '사람들이 모이는 바위 위 물 입자 Universe of Water Particles on a Rock where People Gather'. 가상의 폭포 아래 서 있는 누군가 물의 흐름을 바꾸면 작품은 그 형태를 변화시켜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게 한다. 비로소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었나 싶은 순간, 이내 새로운 가상의 공간으로 빨려들어간다. 손을 대는 순간 만개했던 꽃이 시들고, 환영처럼 나비가 사라지기도 한다.

이 같은 예술적 움직임은 인간을 정형화된 틀에서 마침내 해방시켰다. 이제 최첨단의 기술로 구현된 대자연의 향유하며, 무경계의 자유로운 예술적 리듬을 느껴볼 시간이다.

글 임보연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 편집장



THEME STORY



© 정찬부

02 인사이트

- 08 **미리보기**
일상을 물들이는 초록
2022 동시대미술전 <식물키우기>
- 10 **아티스트 토크**
예술가의 정원
<식물키우기> 참여 작가 8인
- 26 **들여다보기**
인류세 시대의 정원 돌보기
현대 사회 속 정원의 역할
- 30 **칼럼**
교감의 그리너리
식집사들과 교류하는 앱과 유튜브

VIEW



- 34 **깊이보기**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피어나고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 40 **인터뷰**
우리 시대의 목소리
소프라노 상드린 피오
- 44 **이달의 작곡가**
사랑으로 꽃피운 음악
작곡가 윌리엄 윌튼



- 48 **미리보기 1**
내면을 탐구하는 여정
성남중진작가전 1 <문종훈: 玄>
- 50 **미리보기 2**
그 치열한 경쟁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연극만원 <최종면접>
- 51 **미리보기 3**
여름밤의 노래
소프라노 서선영 & 바리톤 고성현
듀오 리사이틀

ART CUR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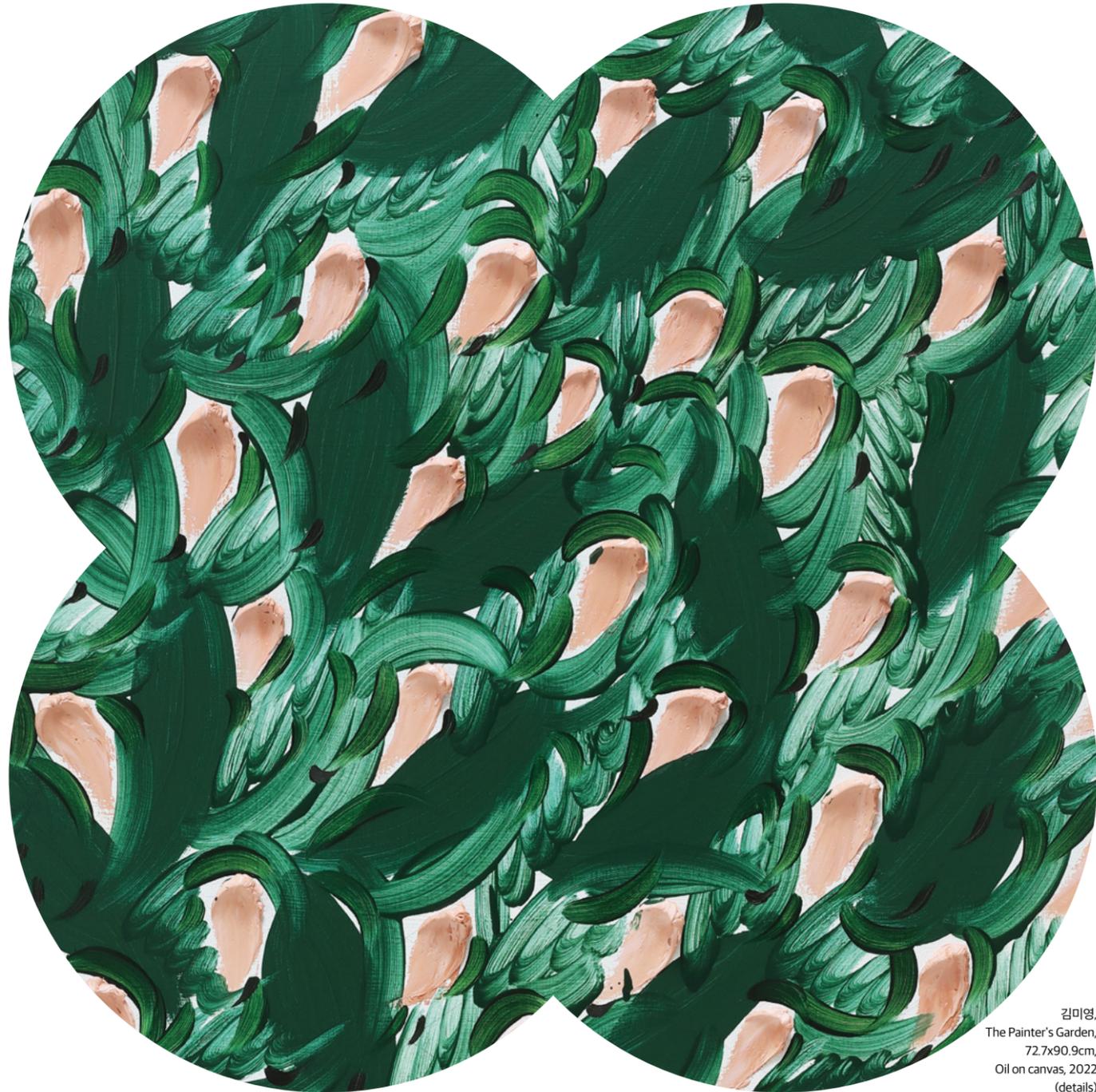


- 54 **기후변화와 예술**
슬픔과 상실을 다루는 예술이 마주한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예술
- 56 **기술과 예술**
여기는 채소 저기는 과일, 잘 키워보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탄생하는 또 다른 나
- 58 **일상에서의 디자인**
문자 오디세이
글자에 담긴 디자인
- 62 **미술 길라잡이**
어디에서 작품을 구매해야 할까요
아트페어부터 옥션까지, 성공적인 컬렉션을 위한 팁
- 64 **영화 속 클래식**
스필버그식 네버랜드를 꿈꾸며
<레디 플레이어 원>과 <환상 교향곡>
- 66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의외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하위문화의 향연
문화의 양조장, 베를린

BEYOND SEONGNAM



- 76 **예술가의 작업실**
묵묵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연희공방 음마깡깡 대표 음대진
- 82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 84 **캘린더**



김미영,
The Painter's Garden,
72.7x90.9cm,
Oil on canvas, 2022
(details)

• G R O W I N G

2022
동시대미감전
<식물키우기>

• P L A N T S

- 08 **미리보기**
일상을 물들이는 초록
2022 동시대미감전 <식물키우기>
- 10 **아티스트 토크**
예술가의 정원
<식물키우기> 참여 작가 8인
- 26 **들어다보기**
인류세 시대의 정원 돌보기
현대 사회 속 정원의 역할
- 30 **칼럼**
교감의 그리너리
식집사들과 교류하는 앱과 유튜브

일상을 물들이는 초록

2022 동시대미감전 <식물키우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살아간다. 인구 밀집 지역에 공동 주거 형태로 자리한 아파트의 특성상, 이는 곧 자연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외부 활동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자연을 가까이하기란 더욱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롭게 등장한 트렌드가 '반려 식물' '플랜테리어' '식물 테라피'와 같은 문화들이다. 2022 동시대미감전의 주제 <식물키우기>는 이렇듯 우리가 당연한 다양한 현실 이슈 중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제를 탐구한다. 식물을 주제, 혹은 매개체로 작업하는 김미영, 김유정, 김이박, 엄유정, 이광호, 정찬부, 허윤희, 팀보타 8명의 작가와 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김미영 작가는 산책 중 우연히 마주한 길 위의 흔한 식물의 모습 안에 내포된 존재감과 생명력을 발견하며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한다. 작업의 소재로 일상 속에서 마주한 풍경들은 캔버스 위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자유롭게 시시각각 변화하고, 작가는 사진첩에서 시간의 기억을 꺼내듯 순간의 느낌들을 붓 터치와 질감과 울동감을 통해 전달한다. 캔버스 위 싱그러운 색상들은 오후의 눈부신 태양 아래 살아 숨 쉬는 식물처럼, 자연스럽게 자연을 떠올리게 한다.

김유정 작가는 '조각난 숲 Carved Grove' '숨의 광경 Breath Perspective' '식물에도 세력이 있다 Plants also have power' 등의 주제로 현대 사회 속 인간의 삶을 식물에 투영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의 대표적 작업인 프레스코 fresco 방식의 평면 작업부터 가구와 액자, 화병 등 다양한 오브제에 틸란드시아 tillandsia 덩굴을 꼼꼼히 감아 완성한 설치작업, 라이트박스, 사진작업 등 시각적·촉각적 실험이 펼쳐진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식물의 모습에서 현대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식물요양소' '식물증명사진' '사물의 정원' 등 김이박 작가의 지난 작업에서는 식물에 대한 작가의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동일한 종의 식물도 키우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작가는 그 안에 존재하는 상호 작용에 관심을 가진다. 그는 식물 키우기는 단순히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닌, 식물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교감과 이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작가적 시선과 관심은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인간과 자연 환경 등 다양한 상호 관계에 대해 확장된 주제를 생산하며 작업으로 이어진다.



2022 동시대미감전 <식물키우기> 중 이광호 작가의 공간

T R A ●

● GREENERY

엄유정 작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시각적 경험들과 그 안에서 발견한 의미들을 회화적 언어를 통해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자연과 인간은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서 인식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흑백의 식물 회화와 드로잉은 유기적이면서 독특한 리듬감을 가진 작가 특유의 자유로운 붓 터치가 잘 드러나 있다. 식물이 가지는 의미와 식물의 또 다른 표정들 속에서 회화가 주는 힘을 느끼게 된다.

이광호 작가는 선인장이라는 평범한 소재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캔버스 화면을 가득 채운 대형의 선인장 작품은 극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작품 속 선인장이 사실적인지 허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가의 감각적인 화면 구도와 세밀한 붓질은 우리의 시각을 현혹시키며 작품을 사실로 인식하고 빠져들게 한다. 이광호의 선인장은 고유의 유기체적 존재로서, 그 존재만으로 이 세계에 뿌려진 하나하나의 개체로 인정하게 되는 듯하다.

정찬부 작가는 일회용 빨대를 작품의 재료로 사용한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자연을 병들게 만들지만, 역설적이게도 작가의 작품 속 플라스틱은 자연을 닮았다. 경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상, 나뭇잎·조약돌·싸앗과 같은 생명체가 연상되는 설치작품은 관람객에게 시각적 만족감을 선사한다. 하지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 가면 우리가 보았던 자연은 사실 속 빈 플라스틱 빨대였다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허윤희 작가는 2008년부터 <나뭇잎 일기> 드로잉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매일 산책길에 나뭇잎 하나를 채집하여 그날의 단상을 적어낸 <나뭇잎 일기>는 자연으로부터 위로받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며 살아가는 작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다. 일기라는 형식

은 가공되지 않은 그날의 순간을 온전히 생생하게 담아내며 작가의 생각과 시선, 공간을 느끼게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처럼 우리 삶과 그 방식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보태니컬 아트 팀 팀보타는 숲, 정원 등 가상의 자연을 창조한다. 자연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엇보다도 가까운 존재이지만,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현실적으로 멀게만 느껴진다. 팀보타는 자연에 대한 도시인의 동경과 욕망을 대변하듯 관객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고 원하는지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게 만든다. 팀보타가 빚어낸 푸르른 숲, 싱그러운 초록색 풀잎, 그 속에 담아낸 자연의 향기는 관객의 시각과 후각을 모두 사로잡는다.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식물은 단순히 집안 한 귀퉁이에 놓여 공기정화나 전자파 차단, 혹은 인테리어를 위해 존재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은 인간에게 위로와 안식,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 성장해간다. 이번 전시가, 지친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을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루고 가진 것들은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이루고자 소망하는 그 무엇일지도 모른다.

글 민재홍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팀 과정

2022 동시대미감전
<식물키우기>는
5월 27일(금)~7월 3일(일)
성남큐비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ARTISTS WALK TO

예술가의 정원

<식물키우기> 참여 작가 8인

김미영, 김유정, 김이박, 엄유정, 이광호, 정찬부, 팀보타, 허윤희.

전시 <식물키우기>와 함께하는 작가들은

다채로운 사유와 은유로 식물과 자연,
그 속에 내재된 생명의 가치를 담아낸다.

식물 본연의 생태학적 아름다움부터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관계 맺기까지,
생명을 바라보는 그들의 사려 깊은 시선을 들여다본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사진 최재우·작가 제공

PLANTS

김미영
Meeyoung Kim

일상의 감각과 순간을 캔버스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의 순간들, 풍경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오감을 자극하는 순간이 강하게 다가올 때 가장 큰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다양한 나무들과 꽃에 둘러싸인 풍경 속에 따뜻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다채로운 자연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바람에 아름답게 흔들리는 잎사귀와 꽃을 바라볼 때면 저 역시 살아 있다는 행복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 작은 순간들을 작품의 원천으로 삼아 조금씩 확장해가며 작업을 시작하곤 합니다.

‘The Painter’s Garden’ ‘The Painter’s Farm’ ‘Wave’ 시리즈 등 작품에서 전해지는 싱그러운 생동감과 리듬감, 입체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으로 만지듯 그림을 그린다’고 언급하신 것처럼, 작가님께서 캔버스를 통해 구현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많은 그림들을 접하면서 살아 있는 그림과 죽어 있는 그림을 분별하는 저만의 기준을 정립한 것 같아요. 방금 그려낸 듯한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림을 바라볼 때 짜릿함을 느끼고 좋은 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게 이상적인 예술의 요소는 ‘시각적 생명력’이고, 작품 안에서도 그 요소에 한 걸음씩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나 활활 타오르는 불, 아니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TV 속 영상 등 움직임을 가진 이미지에 매혹된다고 생각해요. 회화는 영상과는 달리 멈춰 있는 매체지만, 제 작품이 살아 숨 쉬며 생동하는 에너지를 뿜어내기를 간절히 바라죠. 바라보기에 매력적이면서도,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일상 속 인상적인 순간의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림을 남기기 위해서 계속 정진할 계획입니다.



2

- 1 The Painter’s Garden, 130x162cm, Oil on canvas, 2017 (details)
- 2 Sunlight House, 227.3x181.8cm, Oil on canvas, 2016 (details)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매일 작업실과 집을 오가는 길에서 다양한 식물을 접하며 크고 작은 영감을 받고 해요. 특히 시간대마다 다르게 보이는 식물의 풍경은 상당히 흥미롭죠. 같은 나무라 해도 강렬한 햇빛을 받는 모습과 해 질 녘 노을빛 하늘과 함께한 풍경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성남큐브미술관 전시에서는 이렇게 제가 느끼는 다양한 식물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려고 해요. 식물의 이미지를 최초로 사용하게 된 런던 시절 제작한 2013년 작품부터 올해 신작까지 작업 시기에 따른 변화에 주목해주시고, 각각의 작품이 지닌 색다른 식물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감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력 2014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대학원 회화 전공 201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동양화 전공 2008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화과 개인전 2021 Synthetic Moment(갤러리 휴, 싱가포르) 2020 Touch of Eyes(이화익갤러리, 서울) 2019 Summer Hill(노블레스컬렉션, 서울) 2018 Painted Painting(갤러리 기체, 서울) 외 그룹전 2022 나를 만나는 계절(대구미술관, 대구) 2021 THÈSE(갤러리 휴 x 분더샵, 서울) 2020 Timeless(신세계백화점 본점, 서울), Nunc Fluens(Foundwill Art Society, 서울), 우연히 즉흥적인(도잉아트, 서울) 2019 디어식물(소다미술관, 화성) 외 수상 및 레지던시 2019 Vanha Pauku Artist Residency 2018 SíM Residency, Finnish Artists’ Studio Foundation Residency 2016, 2013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2014 Herbert Smith Free Hills Art Graduate Prize Short Listed, Mok Space Award Finalist Listed 외

김유정
Yujung Kim

그동안 도시 속에 이식된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며 식물과 인간의 관계, 인공화된 자연에 대한 작가님의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관련 주제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프레스코화, 식물을 이용한 공간설치,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각적·촉각적 실험과 공간 연출을 선보여왔습니다. 식물과 인간의 지배 관계와 사회화된 식물성을 작품 속 주제로, 인간이 창조한 인공적인 자연에 투영된 사유와 그 속에 자리한 사

회 속 개인의 모습에 천착해왔죠. 틸란드시아에 덮인 장소성에 기반한 오브제들은 인간의 내밀한 영역에 침투한 식물의 폭력성과 잠식성을 표현하며 마치 원시로 돌아간 문명의 종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관람객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동시대 식물의 존재론적 위치, 즉 인간에 의해 돌봄을 받아야 하는 기생 관계 형성의 아이러니에 주목합니다.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러움'을 강요받으며 조정된 식물은 도시 안에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거나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또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잔상을 남기며 어떤 힘 있는 중간자로서 숨은 세력을 뽐내기도 하죠. 때로는 위태로울 정도로 가느다르지만, 동시에 숨은 힘을 간직한 존재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환유적 자연과 생명은 소모품이자 연구의 대상이고 전시 가치로 채워진 소비 사회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식물이 아닌 인간의 영역 안에 이식된 자연의 모습을 통해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려고 해요.



PLANTS ALSO HAVE POWER

프레스코화와 더불어 틸란드시아를 소재로 한 설치작업은 특히 작가님만의 상징적인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인 틸란드시아는 공중의 습기나 먼지를 잎으로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어플랜트, 공중식물, 먼지 먹는 식물로 알려져 있죠. 저의 프레스코 회화 작업은 회벽 표면을 긁어내는 과정의 특성상 먼지가 많은 작업이라, 미세먼지로 뒤덮인 일상에서 몸과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틸란드시아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에 입주하면서 틸란드시아는 제게 위안의 도구이자 반려 식물이 되었고, 때로는 매력적인 오브제로 작업에 호출되기도 했죠. 이 과정 속에서 일방적인 돌봄 행위에 대한 고찰, 살아 있는 것을 길들이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 시간들이 설치작업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염 틸란드시아는 수시로 분무가 필요해 번거로운 면이 있었지만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는 생명이라 보살핌은 필수였습니다. 제 시선에 들어온 정지된 듯 무심한 생명을 관조하는 동안, 환경에 맞게 살아내는 생명체의 생존 조건에 대해 고민하게 됐죠. 틸란드시아는 호습하고 있는 매개체로서 이 주제에 의미가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축 늘어진 식물은 벽면에 걸어두면 마치 회색의 벽에 붙어 있거나 혹은 벽을 뚫고 나온 듯한 묘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연스럽게 자리합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만 생각했던 식물 너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물에 대해 다소 낯설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호응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죠.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전시 공간 좌측에는 인간의 생활을 위해 쓰였거나 개인의 내밀한 공간을 차지했던 가구들이 틸란드시아로 뒤덮이며 그로테스크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작품 <생활 조각>은 조용하게 잠식해가는 세력들의 숨은 힘으로 낯선 듯 익숙한 사물 풍경을 만들어 내죠. 콘크리트 벽에서부터 시작해 기생하는 식물은 점차 인간의 거주 공간 곳곳에 번져가고, 개인의 사물들은 그동안 수동적이었던 인테리어 식물들의 반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공간 우측에는 프레스코 회화 <중간 서식지>가 자리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식물은 플랜테리어 도구처럼 공간 속에 무심하게 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존재감을 발휘하기도 하죠. 인간이



- 1 다양한 오브제에 틸란드시아의 초록색 덩굴을 꼼꼼히 감아 완성한 설치작업
- 2 중간 서식지, 프레스코, 회벽에 스크래치, 90x140cm, 2021

만든 공간의 반경, 즉 인공적으로 조성된 서식 조건 속에서 생장을 지속하는 식물의 모습을 통해 인간과 식물의 관계를 다시금 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예술작품 못지않게 역사성을 지니며 그림을 보호하고 장식해온 존재 '액자'를 제시합니다. 작품 <군락지>는 인간의 돌봄으로 작은 공간에서 수동적으로 생존해온, 인테리어 식물들의 '집'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화분들이 프레임 안에 하나의 정물화처럼 설치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숨> 작품이 놓입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 생겨났던 가구들은 존재의 수명을 다해 버려졌지만, 수집된 자개장 안의 재순환 과정을 통해 새롭게 변신합니다. 들여다본 창은 숨의 공간이자 각자가 기억하는 방식의 심리적 풍경이기도 해요. 빛과 공간의 간격으로 조성되는 초록과 회색빛 음영의 조화는 자연의 동양적인 미감을 체감하게 하죠. 강렬하게 투과되는 빛 사이, 안개 낀 새벽 숲과도 같은 이미지로 재현된 풍경들은 인공의 생명력을 얻어 관객의 내면을 정화시키는 치유의 정원이 됩니다.

학력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서양화 전공 박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학과 학사
개인전 2021 붉은 공기와 모서리 잔상(금호미술관, 서울) 2020 잠식함, Submerged Vessel(정서진아트큐브, 인천) 2018 식물에도 세력이 있다(소피스갤러리, 서울) 외 그룹전 2022 다크게, 조금 더 가깝게(의정부미술도서관, 의정부), 치유의 기술(뮤지엄1, 부산) 2021 홀로세(Holocene)의 미래(충무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모카 팔레트(모카가든미술관, 남양주), a mark II. 낯선 신호, 기울어진 대상(삼육빌딩, 서울) 외 주요 수상 및 지원 2022, 2021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 2020 인천문화재단 인천형예술인지원사업 다년지원 선정 외 레지던시 2015~2017 인천아트플랫폼 6, 7기 입주작가 2012~2014 OCI미술관창작스튜디오 2, 3기 입주작가

김이박
Kim Lee-Park



1



2

식물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과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성인이 되어 서울로 이주하고 독립적인 주거 공간(고시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두었고, 이사를 할 때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고자 식물을 키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화분에서만 식물을 키우던 제게 처음으로 작은 정원이 생겼어요. 외부로 노출된 채 쓰레기장처럼 방치되어 있던 정원을 청소하고 새 흙과 퇴비로 개간했죠. 다른 주민들은 집 앞에 방울토마토나 상추, 대파 등의 작물을 키웠지만, 저는 해바라기나 장미, 칸나 같은 관상식물의 씨앗을 뿌리고 늘 정원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개간 이후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식물이 뽑히거나 훼손되고, 설치해놓은 펜스마저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죠. 경고문을 붙이고 펜스를 재건했지만 사건은 줄어들지 않았고, 저는 정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3개월 동안 녹화된 영상 속에는 많은 일이 있었고, 이 기록을 모아서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987번지>라는 영상 작업을 만들었죠. 식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진 않았지만, 제 식물 작업의 시작이 되는 사건과 작업이었습니다.

‘사람의 삶과 식물의 삶은 서로 닮았다’는 상호적 관계성에 방점을 둔 작품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계십니다. 작가, 치료사, 연구자까지 다양한 면면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작가님이 작업을 통해 전하시고픈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가치에 함몰되어 사라진 식물의 사회적 가치의 행방을 찾는 활동입니다. 이때 프로젝트 참여자와 전시 관람객과 교류하는 형식의 작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식물 키우기가 정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일반론을 넘어서 참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타인의 다양한 삶의 일부분을 읽어내려는 노력이라는 데 있었습니니다. 비록 사소하고 작은 관계에서 시작된 미미한 활동이지만, 언젠가 이 활동이 발전하여 관계 맺은 타인과의 상징적인 영역에서 어우러진 ‘상상의 정원’이 만들어질 때,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 잊고 지냈던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사물의 정원>과 <나의 정원>인데요, 우선 2017년부터 꾸준히 제작·전시하고 있는 <사물의 정원>은 관람객이나 참여자들의 사물로 만들어낸 설치작품이자 식물을 키우는 마음,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나의 정원>은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여러 식물들과 부산물, 반려 식물에 대한 드로잉 등을 혼합 구성한 설치 작품입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우는 식물들 또한 각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구상한 작품이죠.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식물들은 이렇게 무늬와 색깔, 형태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며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 1 당신의 정원-식물 표본 아카이브
- 2 당신의 정원-화분, 흙, 작물, 화분, 식물재배등, 가변크기, 2020
- 3 사물의 정원,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7

학력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계원디자인예술대학 화훼디자인과 졸업
개인전 2022 아가의 동산, 씨언덕모티(공간 일리, 서울) 2020 당신의 정원(서울시립북서울 미술관, 서울) 2018 미모사-sensitive plant(위켄드, 서울) 2017 자라는 모습(러리 밈, 서울) 2016 노심초사(반줄 루프탑 갤러리, 서울) 2015 이사하는 정원(롯데갤러리 일산점, 고양) 단체전 2021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청주), 이토록 아름다운(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20 ZOOM IN I Aa(예술공간 이아, 제주), 글로벌 워크: 예술가의 공원, 치유의 공원(문화비축기지, 서울), 플랫폼포럼 합정지구(합정지구, 서울), 호텔사회 Hotel Express 284(문화역서울284, 서울) 외 프로젝트 2021 뻐뻐는 공공공 共共共(뻐뻐보관소, 의정부), 온실열람: 온실 파트(공간일리, 서울) 2020 구로 커뮤니티 공중정원-꿈꾸는 정원사(구로문화재단, 서울), 예술나눔 꿈-밭 아트스페이스 나인, 서울) 2018 어떤 시선: 미술관, 식물 관찰기(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FEUILLES-PICTORIAL LANGUAGE



엄유정
Eom Yu Jeong

작가님의 작업에서는 ‘식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식물 그림을 엮은 작품집 『FEUILLES』가 지난해 한국 서적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뽑힌 데 이어, 올해 보고타국제 도서전에서도 세계 독자들에게 선보였지요. 식물이라는 소재에 집중하시게 된 이유, 수년간 식물 작업을 지속하신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식물만을 그리는 작가는 아니지만, 자연의 여러 형상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작업을 꾸준히 지속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낯선 형태를 찾아다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식물을 관찰하다 보면 그 안에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구조와 리듬, 움직임이 존재한다고 느껴요. 그 구조들 안에는 여러 질서와 또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가 함께 공존하는데, 다양한 대

상을 바라보고 그려 나가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특성들을 배워 나갑니다. 그것은 제가 기존에 습관적으로 그리던 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이러한 생경한 경험들이 식물 작업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 인물과 사물, 이국의 풍경 등 다양한 삶의 순간들을 담은 작품들에서는 세상을 관찰하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특히 작품마다 다양한 물성의 재료를 고루 사용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재료나 기법, 표현 방식에 차이를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대상을 하나의 평등하고 고유한 개체로 대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그에 맞게 방향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식을 고정해두지 않고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표현 방식

을 고민하지요. 어떤 식물에서는 선적인 특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먼저 색이나 부피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에 따라 가벼운 물성의 재료로 얇은 선을 긋거나 또는 두꺼운 유화, 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선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그림들을 모아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식물의 색을 제거했을 때 그 선적인 특성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 이번 작업은 그에 대한 것입니다. <Leaves> <Greenhouse>는 외부에서 발견한 풍경에 대한 작업이고, <Hand-tied flowers>는 2020년 화훼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하나의 절화에 대한 시리즈 작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절화를 구매해 실내에서 다양한 각도로 돌려가면서 작업을 이어 나갔죠.

1 Hand-tied flowers, 360 x 283cm, Oil color on Fabric, 2020
2 Greenhouse, Oil & Acrylic color on Fabric, 2017

학력 2009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21 밤-긋기(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FEUILLES(갤러리 소소, 서울) 2019 ARAUCARIA(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6 사막 나무늘보 병 사람과 같은 것들(갤러리 팩토리, 서울) 단체전 2022 감상의 발견: 느리게, 조용히, 신나게(로얄엑스, 화성), 언박싱 프로젝트 투데이(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2021 식물예찬(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BGA 쇼룸(BGA마루, 서울), 플랜트 씨의 가구들(김희수아트센터 아트갤러리, 서울), 번덕스러운 부피와 두께(KF갤러리, 서울) 외 프로젝트 2021 경계에서의 신호(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서울), 낯설고 가까운/예술가의 런치박스(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0 경기창작센터 온라인 VR영상 오픈스튜디오(경기창작센터, 안산) 외 레지던시 2020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9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3 리스투스 아티스트 레지던시, 아이슬란드 수상 2021 Golden Letter, Best book design all over the world, 독일 2019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선정 외

CACTUS, THE DISCOVERY OF NARRATIVE



1



2



3

올해 오랜만에 선인장 작업을 하면서 제 시력의 한계를 절감했어요. 선인장 작업은 외곽선이 분명하고 질감을 표현하려면 오랜 시간 대상의 한 부분을 주시해야 하는데 이제는 제 눈이 감당하기에 버겁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한계에 반응하면서 시선의 성격이 변화하고, 따라서 작업의 방법도 변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 덩굴숲, 뉴질랜드의 습지 등을 담아낸 작품에서는 쓸쓸한 원형으로서의 자연이 느껴지는 동시에, 실제로 거니는 듯 서걱거리는 질감, 축축한 흙과 서늘한 공기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흔히 연상하는 아름답거나 장엄한 풍경이 아닌, 조금은 어둡고 외로운 자연 풍경의 어떤 부분에 매료되었는지, 그 풍경을 통해 화폭에 담고 싶으셨던 감정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풍경에 우월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눈이 아름답게 느끼는 풍경을 그립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죠. 평범한 풍경이라도 찬찬히 바라보면 제 눈에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수풀이나 이끼 등에서도 생명력을 느끼고 교감하게 됩니다. 풍경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풍경을 바라보는 당시의 제 심정이 반영되기도 하겠죠.

- 1 Cactus No.30, Oil on canvas, 259.1x181.8cm, 2008
- 2 Cactus No.33, Oil on canvas, 259.1x193.9cm, 2009
- 3 Cactus No.32, Oil on canvas, 259.1x170cm, 2009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요?

2008~15년에 제작된 작품들과 올해 새로 그린 컬러풀한 선인장 작품 2점이 전시됩니다. 모두 200호 이상의 대형 작품입니다.

이광호
Lee kwang-ho

사실주의 회화의 대표 작가로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오셨습니다. 작가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인장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자연물 중에서도 선인장에 집중하게 되었던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 지난해 오랜만에 선인장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셨는데, 10년 전과 달라진 소회가 있으신지요? 제 작업 중 'Inter-View' 시리즈가 있어요. 120여 명의 초상화를 그리는 프로젝트였는데, 2007년 시리즈가 거의 끝나갈 때쯤 무심결에 선인장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nter-View 시리즈 이전의 작업들이 저의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서사적인 형식

으로 그려왔다면 이후의 작업은 언어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붓질의 감각을 드러내고 싶었죠. 여러 대상을 놓고 고민하다 촉감을 재현할 수 있는 소재로서 선인장이 떠올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인장은 촉각적 질감을 표현하는 저의 유화 기법이 잘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시각적 의도 외에 어떤 메시지나 상징을 전달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다양한 선인장은 저마다 존재의 필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긴 이유가 있겠다'는 거죠. 각자의 선인장이 사람처럼 동물적인 생명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학력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9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1 Lee Kwang-Ho(조현갤러리, 부산), Lee Kwang-Ho(갤러리2 중선농원, 제주)
2020 Lee Kwang-Ho(조현갤러리, 부산) 2018 Lee Kwang-Ho(조현갤러리, 부산) 2016
Lee Kwang-Ho(Art Central, 홍콩) 외 단체전 2022 극사실 회화의 역사와 현재(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화론(이화익갤러리, 서울) 2021 폐허에 폐허에 눈이 내릴까(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We connect, Art & Future-KIAF and Incheon Airport(인천공항, 인천), 화론(통인갤러리, 서울) 외 수상 및 레지던시 2006 제3회 Castellon 국제회화 공모전 후보자 선정,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 인기작가상 2005~2006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 200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원 전시기금 외

정찬부
Chanboo Jung

플라스틱 빨대와 같은 합성 물질을 소재로 생명과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작품의 소재로 빨대를 사용하게 된 계기, 작가님의 작업 속에서 빨대가 가진 상징성이 궁금합니다.

2007년쯤 카페에서 작업을 구상하던 중 우연한 관찰을 통해서 영감이 떠올랐어요. 커피나 음료를 마시기 위해 잘 세팅된 빨대가 반복적으로 버려지는 순간을 지켜보다 '사물의 용도가 다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빨대가 작가의 시선에서 작업의 재료로 사용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궁금했고, 놀이와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빨대는 작업의 재료인 동시에, 쉽게 맺고 끊어내는 인간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역설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장 인공적인 소재로 자연과 생명체의 모습을 빚어낸다는 점, 버려지는 일회용품에서 새로운 예술이 탄생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작가님께서 전하시고픈 메시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달라진 시대의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도의 현대 산업 기술이 만들어내는 합성 물질은 전형적인 자연과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합성 물질을 빼놓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활용도가 존재하죠. 제 작업은 자연을 닮았으나 자연은 아닌, 흉내 내고 박제되고 변형된 물질의 생명체를 통해 현대의 물질로부터 회복 가능한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과정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번 전시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작품 중 <산세베리아(정원에서)>와 공중에서 부유하는 빨대로 만들어진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쓰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애잔함, 그리고 사소해서 지나치기 쉬운 대상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셨으면 합니다.

1 in the garden, 빨대 혼합재료, 2008
2,3 피어나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4-2018



학력 2006 중앙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2001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22 공공이 피어나다-P.S 혼자서 당당히(갤러리 H, 일산) 2021 공돌이(2020년부터 온 초대장(뮤지엄그라운드, 용인) 2020 YELLOW: 변모된 공간(롯데갤러리 대전점, 대전) 2019 YELLOW: metaphorical place(갤러리 254, 서울) 2018~19 피어나다(서울식물원, 서울) 의 그룹전 2021 식물예찬(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GO TO ZERO(서울웨이브아트센터, 서울), 어떤 쓰임(탑골미술관, 서울) 2020 봄바람 휘휘호호(신세계갤러리 대구점, 대구), 지구생활 보고서(구하우스미술관, 양평), 바다에서 온 업사이클(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광명)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문화제조창C, 청주) 의 수상 2013 가송예술상 대상 레지던시 2017 사르자 마리아아트센터 국제레지던스 2015 김환기 국제레지던스



1



2

팀보타
TEAMBOTTA

조경학, 사운드아트, 미디어아트, 공간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팀보타 그룹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팀보타가 만들어가는 '보태니컬 아트 Botanical Art'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팀보타는 살아 있는 자연 그대로의 소재들을 활용해 대중이 문화 예술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직접 체험'의 예술 형태인 오감형 아트워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디어아트·팝아트·라이팅아트 등 전달 매체로서 각각의 아트 기법을 강조하기보다 본질의 소재에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에게 제한된 감상이 아닌 폭넓고 직접적인 체험의 경험을 전달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만들어가는 '보태니컬 아트'의 모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수의 기업 브랜드들과 협업한 인상적인 전시와 공간 프로젝트를 보여주셨는데요, 팀보타 그룹이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가치 혹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 기업, 또 여러 장르의 브랜드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이어 나가는 이유는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예술은 누구나 쉽고 가볍게 가까이서 즐길 수 있고, 정형화된 해석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문화를 소비하는 대중이 느끼는 그대로 감정과 생각의 변화를 향유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더 힘쓰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감싸 안아 위안을 주고,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사색으로 이끌어 스스로를 마주하게 해주는, '자연'의 본모습과 재해석된 모습



3

- 1 <식물키우기>에서 만날 수 있는 팀보타의 작품 <탑의 껍질>. 공중에 띄운 면 형태인 숲의 표면은 남을 따라 하며 만들어지고, 쌓인 껍데기가 점차 해방되는 공간이다(아트 디렉터: 김슬기, 강이안/co-work)
- 2,3 네이처 디자인) 팀보타가 그동안 창조한 가상의 자연

을 통해 우리 인간 내면의 본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저희가 재구현한 숲 속 자연 속에서 관객 여러분이 사회에서 받은 상처와 피로를 치유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억과 감정, 경험들이 쌓여가는 마음속 시간의 흐름을 자연의 레이어층으로 표현한 풍경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기억, 추억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레이어가 쌓이듯 마음속에 쌓여가지요. 저희는 쌓여가는 시간 속 경험의 레이어를 자연의 높에서 차용해, 물속에서 탄생해 번식해 나가는 생물과 포자(시트 포자 안의 시간의 흐름을 나이트로 표현합니다), 그 위 자연과 생명이 쌓여가는 모습을 이끼, 그리고 만발해 펼쳐지는 꽃으로 레이어가 쌓이듯 띄워서 구현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 2019 LG SIGNATURE 전속 플라워 디자인, 한솔 전속 플라워 디자인, 세븐일레븐 콘셉트스토어 실내조경 기획연출, 한화 63ART 전시/TEAM BOTTA 63 총괄 기획연출, 2018 코리아아트투어랜드 인공호수공원 기획, 제주신화월드 보태니컬 공간 기획연출, SM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경 기획연출, YG 제주음식문화거리 조경 기획, 철원테마파크 조경 기획, 2017 제주신화월드 보태니컬 공간 기획연출, 여주세종대왕릉 역사문화관 한글정원 조성,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실내의 조경 기획연출, 남산케이ابل라 조경 기획연출 외



1

DAILY PROJECT

허윤희
Yunhee Huh

2008년부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뭇잎 일기를 써오셨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자연이 작가님에게 준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작가님 내면에 일어난 변화도 궁금합니다. 자연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힘을 주었고, 자연 속에 혼자 고요하게 머물 때면 상처받은 마음을 따스하게 위로해주었죠. 생명의 아름다움과 살아있음의 기쁨을 알게 해주고, 삶의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자연 안에서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아이처럼 순수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매일 일기를 쓰는 동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순간들이 있고 그날 만난 사람, 그와 나누는 이야기, 책 속에서 읽은 구절, 아름다운 시와 음악,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느꼈죠. 큰 것을 바라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의미를 찾고,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빙하, 멸종 위기 식물 등 자연과 환경 위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 또 이 주제를 작업으로 연계하고 담아내는 노력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매일 나뭇잎을 관찰하고 그리면서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과 지구가 병들고 있음을 예민하게 느끼게 됐죠. 미세먼지로 푸른 하늘이 사라지고, 이상 기온으로 빈번해진 폭염·가뭄·홍수·산불로 우리의 삶이 예측할 수 없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린

1,2 나뭇잎 일기, 2008-2019, Gouache, 각 21x29.7cm

다는 사실이 놀랍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목탄을 이용한 대형 벽화 드로잉 퍼포먼스로 빙하를 그리고 지움으로써 위기감을 드러내고, 눈앞의 생생한 현실을 피하지 말고 행동하자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식물 탐사 활동은 나뭇잎을 그리면서 식물을 공부하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전국의 산을 다니며 나무와 야생화를 관찰하는 동안 사라지는 멸종 식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 온난화와 무분별한 개발, 무단 채취로 자생지가 파괴되거나 생물들이 멸종한다니 안타까움과 걱정이 켜졌. 지구에 사는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데,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도 사라지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관심으로 멸종 위기 식물을 그리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멸종 위기 식물들을 주제로 계속 작업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2008년 초기부터 2019년까지의 '나뭇잎 일기' 작업, 더불어 우리나라 멸종 위기 식물을 커다란 유화로 그린 신작 '화석' 시리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학력 2003 브레멘예술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순수미술학과 마이스터슬러 졸업 2002 브레멘예술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순수미술학과 석사 졸업(디플롬) 1991 이화여대 미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개인전 2021 숨 쉬러 나가다(국립세종수목원, 세종) 2020 소망을 품다(영문미술관, 경기도 광주), 사라져 가다(수예노339, 서울) 2019 내가 숲에 갔을 때(롯데갤러리, 서울/일산) 2018 마음 채집실(디스위켄드룸, 서울) 외 단체전 2022 섬-보다 듣다 가다(포지션 민/아트스페이스 씨, 제주), 꽃 향에 취해(류가현갤러리, 서울) 2021 보고 싶은 얼굴(이한열기념관, 서울), 식물의 방(유지엄 산, 원주), 오늘의 명상(은평문화재단, 서울),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재난과 치유(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푸른 유리구슬 소리-인류세 시대를 예도하기(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외 수상 및 출판 2018 나뭇잎 일기(공리출판사) 2002 브레멘예술대학상 외 레지던시 2018~21 영은창작미술스튜디오, 경기 광주 2015 International Studio and Curatorial Program Artist Residency, New York 2012 Kultur Palast Wedding International, Berlin 2010 Iwami International Artist Residency, Tottori, Japan 외

인류세 시대의 정원 돌보기

현대 사회 속 정원의 역할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사람들은 다시금 자연에서 위로를 구한다.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서라도 공원에 가고 캠핑을 하고 산에 오른다.

화분을 사고 텃밭을 일구고 정원을 가꾼다. 정원을 주제로 하는 출판과 전시, 방송도 늘어나며 정원 문화가 크게 확산되는 듯하다.

시골, 야생, 숲, 식물, 원예, 플랜테리어, 정원, 공원... 비슷한 듯 다른 자연과 인공, 자연과 문화의 스펙트럼의 어딘가에서 우리는 위안과 기쁨을 구한다.

사실 이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혼란의 시기마다 정원은 언제나 잠시 머무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



중세의 수도원 정원이 그러했고, 『데카메론』 속 정원은 흑사병을 피해 온 이들을 맞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러 문인들도 혼란한 세상을 벗어나 은일하며 정원을 돌보았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정원을, 엄밀하게는 정원 가꾸기(gardening)를 전 인류가 집단적으로 욕망한 시기가 또 있었을까.

인류는 문명 생활을 시작한 이래 정원을 가꾸어왔고, 꿈꾸어온 이상향을 정원이라는 형태로 구현하고자 했다. 예술로서의 정원은 단순히 식물을 보기 좋게 배치한 곳을 넘어 인간의 창조력을 집약한 공간이었다.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정원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식을 보이며 인류가 자연, 나아가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특히 생태적 가치가 중시되는 오늘날에는 예술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정원 디자인이 부각되고 있다. 정원을 보는 낭만적인 필터가 벗겨지는 시대, 혹은 새로운 필터가 덧씌워지는 시대다.

식물은 정원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정원에는 식물이 주요 소재로 활용된다. 그리고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원만의 고유한 특징이 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완공되는 건축과 달리, 정원에는 완성이 없다. 오히려 시공이 끝나는 순간부터가 시작이다. 정원의 디자인이나 메시지와는 별개로 식물의 성장, 휴과 물의 도움, 날씨와 계절을 아우르는 시간의 흐름이 정원을 자라게 한다. 그리고 이는 정원을 가꾸는 이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진다.

식물 재배와 정원 가꾸기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난이나 분재, 근래 유행하는 독특한 식물 키우기처럼, 특정 식물을 아끼고 하나의 오브제로 완성하는 일을 광의의 정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꾸는 이의 마음에 따라 작은 화분 하나도 정원이 된다. 하지만 이 돌을 동일시할 수는 없고, 식재료와 요리의 차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다. 원예 또한 인간이 자연을 길들이면서 시작되었으나, 정원은 특정한 의도에 따라 자연과 인공을 배치한 고차원적 문화의 영역이다. 한정 짓고 길들여, 사람의 마음에 들게 만든 자연이 정원이다. 네덜란드의 정원 디자이너 아우돌프가 다큐멘터리 <다섯 계절: 피트 아우돌프의 정원 Five Seasons: The Gardens of Piet Oudolf>에서 말했듯, 만들어진 정원은 “우리가 꿈꾸던 정원일 수 있지만, 야생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아무리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더라도 정원은 자연이 아니다.

정원을 돌보는 손길

그러면 정원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정원을 돌보는 손길이다. 정원은 그저 보기 좋게 치장한 녹지 공간이 아니고, 사람을 환대하고 위안을 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나아가 비대면·비접촉의 시대에 정원은 우리가 다시금 감각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곳이다. 일찍이 차페크 Karel Capek가 말했듯,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기 위해 손바닥만한 정원이라도 가꾸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기후 위기와 인류세가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오늘날 이는 더욱 요원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속에서 정원, 그리고 나아가 정원을 가꾸는 행위의 의미를 탐색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여기에서 돌봄의 가치가 부각된다. 문학 연구자 해리슨은 『정원을 말한다』에서 인간의 조건, 즉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요건으로 돌봄을 꼽고, 정원이 이 소양을 가꾸는 장임을 역설한다. 그런데 이 돌봄(care)이라는 말에는 염려라는 뜻도 담겨 있다. 그가 인용

흙과 물의 도움, 날씨와 계절을 아우르는 시간의 흐름이 정원을 자라게 한다.
그리고 이는 정원을 가꾸는 이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신화에 따르면 쿠라 여신이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었기에, 우리에게 흙을 돌보고 염려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이는 정원을 가꿀 때 가장 잘 발현한다. 정원사들은 끊임없이 돌보고 염려하며 스스로가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지구 전체로 돌봄과 염려의 관계를 확장하게 된다. 자원을 넘어 지구 자체까지 소비해버리는 시대에 이 돌봄은 더욱 절박하다.

아일랜드의 정원 디자이너 메리 레이놀즈Mary Reynolds는 이러한 돌봄의 정원을 확장하고 있다. 영화 <플라워쇼Dare To Be Wild>의 실제 인물이기도 한 그녀는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자연주의 정원의 주요 작업자다. 영국 첼시 플라워 쇼 역대 최연소 금메달 수상이라는 영광을 뒤로하고, 레이놀즈는 큐 왕립 식물원Royal Botanic Gardens, Kew을 포함한 도시의 공간을 야생 정원으로 조성했고, 더 나아가 땅을 돌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거창하게 정원을 가꾸지 못할지라도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 땅을 자연의 선물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페크가 말했듯이 진정한 정원사는 꽃이 아니라 “흙을 가꾸는 사람”이다.

레이놀즈가 세운 arkwearethark.org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일을 한다. 이를 통해 작은 공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는 생태계가 다시 살아난다. 노아의 방주ark가 지나간 홍수 동안 지구의 종을 보존했듯, 오늘날에는 환경을 회복시키는 다정한 행동Acts of Restorative Kindness이 우리를 살아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원을 가꾸는 책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어느 날 낯선 병이 닥친 마을의 우화로 시작한다. 새들이 울지 않는 봄은 고요하고, 꿀벌이 없으니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책이 출판된 60년 전에는

DDT를 포함한 화학 약품이 생태계를 바꾸었지만, 오늘날에는 기후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서 기후변화로, 다시 기후재난으로 상황을 정의하는 말은 위중해지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은 도리어 이를 악화시킨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 황무지를 숲으로 만들던 시대는 끝났고, 정성스레 심은 그의 어린 새싹은 자라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영화 <인터스텔라>와 엘리자베스문의 소설 『잔류 인구』에서처럼 회생 불가의 지구를 떠나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두 번째 지구는 없다.”(타일러 라쉬 저).

인류세Anthropocene, 즉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뚜렷한 변화를 만든 시대는 자랑스러운 용어가 아니다. 우리는 운석 충돌, 화산 폭발, 빙하기에 맞먹을 정도로 지구의 자원을 사용했고, 이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감responsibility이라는 말을 풀면, 응답할 수responsible 있음이 된다. 그리고 response의 어원을 보면 ‘다시re 약속할 수 있음spondere’이라는 말을 본다. 여섯 번째 대멸종의 길에 들어서선 절체절명의 상황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음, 미래를 위한 희망을 다시 약속할 수 있음이 책임감의 새로운 의미가 되어야 할 때다.

볼테르는 “우리의 정원을 가꿔야 한다 *Il faut cultiver notre jardin*”는 말로 『칸디드』를 끝맺는다. 일견 낭만적으로 보이는 경구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칸디드는 18세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고생을 했고, 용케 살아남아 작은 정원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가 좇던 좋은 세상은 권력이나 신분, 돈, 공허한 담론으로 만들 수 없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는 정원을 가꾸듯 스스로, 그리고 책임지고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정원은 나의 정원이 아니고, ‘우리’의 정원이다.

글 황주영 조경사 연구자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미술과 조경의 역사를 공부했고, 파리 라빌레트 국립건축학교에서 박사후 연수를 마쳤다. 미술과 조경의 경계를 넘나들며 문화사적 관점에서 정원과 공원, 도시를 보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이와 관련된 강의와 집필, 번역을 한다.

2022동시대미감전

식물 키우기

김미영 김유정 김이박 엄유정 이광호 정찬부 팀보타 허윤희

2022.5.27^{FRI} - 7.3^{SUN}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FOR MY GARDEN



YOUTUBE

그랜트의 감성 grantparkgamsung

그랜트는 4평 남짓 베란다 없는 공간에서 수백 종의 식물을 가꾸는 덕후다. 자신의 채널에 모인 모든 이들이 식물과 행복하기를 바라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뱃글만 읽어도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식물 일기' 시리즈는 식물 집사 필수 루틴을 소개하거나 실속 있는 원예 도구를 추천하고 부러진 식물 살리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반려 식물과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식물 나들이 | 랜선 투어' 시리즈는 화훼 농장과 화원, 꽃집 그리고 식물원이나 정원 카페 등지를 탐방한다. 때론 타인의 정원을 방문하기도 한다(정원을 소개하고 싶은 이웃의 신청을 받기도 한다고). 하나의 식물을 집중해서 다루는 '식물 탐구', "풀멍"하며 일상을 치유하는 '식물 테라피' 시리즈 등처럼 다양한 주제의 영상이 풍성하다. 식물의 감성과 그랜트의 감도를 감지하는 감미로운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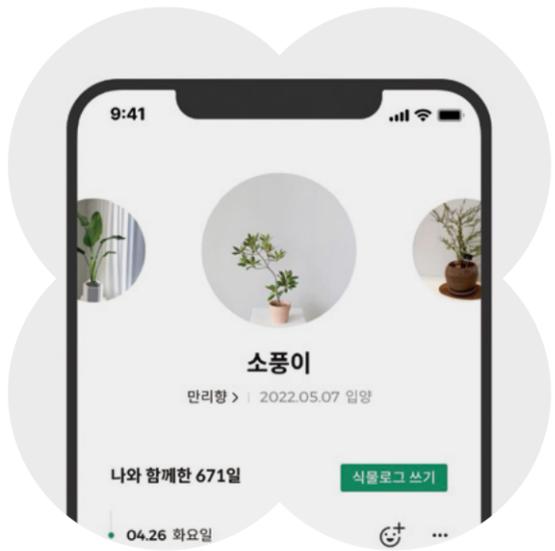
제인센스

제인의 영상을 보면 베란다뿐 아니라 거실과 침실 등 집안 곳곳에 감각적으로 식물을 배치해 플랜테리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행잉 플랜트, 수경 재배, 장마철 대비, 월동 준비, 포장 이사 등 플랜테리어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가 가득. 특히 토분을 다루는 콘텐츠는 잘 키운 반려 식물을 아름다운 토분에 식재하는 행복을 깨닫게 해준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겸손한 태도를 지녀 함께하는 내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대부분의 댓글에 답을 달아줄 정도로 식물 집사들과의 소통에도 열정적. 힘든 시절 식물을 통해 위로받은 제인은 자신의 영상이 다른 이에게도 식물을 길러보아겠다는 마음을 심어주면 좋겠다고 속삭이는 듯하다.

교감의 그리너리

식집사들과 교류하는 앱과 유튜브

소중한 반려 식물과 긴밀히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식물 집사들과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주는 앱과 유튜브 채널



APP



그렉: 이지 플랜트 케어 Greg: Easy Plant Care

그렉의 시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식물 집사가 반려 식물을 촬영해 사진을 등록하면 종을 알아낸다. 화분 크기, 창문과의 거리, 일조량, 마지막으로 물을 준 시기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 식물이 성장하는 주변 환경을 분석한다. 휴대전화 위치 기반 기능을 통해 기후와 날씨를 알아서 파악한다. 그리고 식물 관리 경험 등 나의 성향도 고려해준다. 이렇게 기르는 식물의 정보와 재배 환경을 세심하게 헤아려 반려 식물의 성장과 관리에 최적화된 방법을 안내한다. 물 주는 시간과 적정량을 알려주는 것은 기본. 화분 재질과 창문의 방향, 에어컨과 히터 여부 등 세부 사항을 추가하면 더욱 세밀하게 관리법을 추천해준다. 다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하다. 머신러닝으로 집사들의 모든 활동을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기 때문에 식물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섬세해질 예정. 게다가 전 세계의 반려 식물을 키우는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까지 겸한다. 그렉은 뉴욕 출신이라 언어는 영어로 지원된다.



식물119

"왜 아픈 거지?" 때문 영문도 모른 채 앓는 반려 식물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식물을 기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식물119에 질문을 올리자. 사진을 찍어 상태를 바로 알릴 수 있으며, 고수 식물 집사와 전문가가 정성스러운 답변을 해줄 것이다. 다른 집사와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반려 식물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이게 된다. 질문을 하는 사람과 답변이 채택된 사람 모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 포인트를 모아 수십만 종류의 식물을 취급하는 엑스플랜트샵에서 앞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은 반려 식물을 데려올 수 있다. 인기 검색어 등을 통해 요즘 식물 트렌드를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나의 정원 메뉴에서는 반려 식물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뱃글을 달면서 교류할 수 있다. 내가 올린 식물 사진이 좋아요를 받을수록 랭킹 점수가 오르는데, 매달 등수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열심히 활동할수록 보상이 따라오니 식물 집사는 또 다른 뿌듯함을 느낀다.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이용 가능.



그린그린 - 더 편리한 식물 관리의 시작

국내 식집사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영해 만든 앱. 개인의 경험과 취향, 공간과 상황 등을 토대로 한 꼼꼼한 설문 혹은 식BTI를 통해 어울리는 반려 식물을 추천해준다. 어떤 식물을 기르면 좋을지 고민하는 초보 집사의 결정 장애를 해결해주는 셈. 반려 식물을 위한 물 주기 알람과 관리 팁을 제공하며, 캘린더에서 분갈이 등의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발아하고 꽃을 피워 열매 맺는 등 매일 조금씩 자라는 식물의 일기를 써 내려가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된다. 이렇게 식물의 성장을 기록하다 보면 어느새 식물 리포트가 발행되기도. 내가 식물을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 '식물력'을 알려준다. 식물 집사 커뮤니티에서 랜선 투어를 하며 다른 이들의 반려 식물을 구경하고 서로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도 힘이 된다. 몬스테라, 오렌지 재스민, 올리브나무 등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종종 열린다.



왓캠 - 꽃 식물 이름 찾기

식물을 촬영하면 왓캠의 시가 해당 식물을 분석하고, 정확도(%)순으로 식물의 이름을 제공한다. 분석 결과 버튼을 누르면 식물 도감으로 연결되어 식물의 이름, 분류, 형태, 분포, 서식지, 개화기, 재배 방법 등의 상세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국내에 서식하는 1,900여 종의 꽃과 관엽 식물을 인식한다고(2022년 5월 기준). 향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물 2,000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왓캠은 꽃에 특화된데다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이용 가능해 야생화를 마주할 수 있는 산 등지에서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 키우는 반려 식물에 대해 일기를 쓰며 물을 주고 영양제를 처방하고 분갈이하는 순간을 기록하거나 플랜테리어를 자랑해도 좋다.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하며 소통하는 게시판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식물 전문 블로거와 유튜브 등이 매일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거진도 흥미롭다. 식물 카페를 방문하는 금요일과 꽃시장·식물원을 탐방하는 토요일처럼 요일마다 알찬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식물 집사 간 직거래 장터를 열고, 지역 화원에서 취급하는 식물의 종류와 입고 예정일을 알려주는 기능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라고. 식물 콘텐츠의 무궁무진한 확장은 계속된다.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이용 가능.

글 김민주 객원기자

도시 레벨링 지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7차시)
[08.24-10.05(수)/19:00-22:00]

우리가 사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도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시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예술적 문제해결을 함께 고민합니다.

도시 명상

익숙하지만 낯선_영상일기(5차시)
[06.03 - 06.17(금)/19:30-21:30]
*야외 출사 06.04(토) 16:00-21:00

도시의 빈 공간을 찾아 명상에 잠기고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촬영과 편집의 기본을 배우고, 나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여 한 편의 영상으로 완성합니다.

뮤직-컬러링

색으로 그리는 플레이리스트(5차시)
[06.08 - 07.06(수)/19:00-21:00]

세상의 다양한 음악을 풍요롭게 들어봅니다.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색채학을 활용해 음악을 색으로 시각화하여 나만의 음악-컬러 색상을 제작합니다.

위트앤시니컬_성남詩

가을밤 시쓰기(4차시)
[10.04 - 10.25(화)/19:00-21:30]

시집 전문서점 위트앤시니컬의 대표, 유희경 시인과 함께 합니다. 나를 위해 시를 읽고 쓰고 낭독하는 사이, 내 것이되 내 것이 아닌 마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 수강신청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 홈페이지(<https://www.snarte.or.kr>)를 이용해주세요.

도시를 위한 수작(手作)

1기 [09.23(수)/10:00-12:00/탄천]
2기 [09.30(수)/10:00-12:00/탄천]
3기 [10.07(수)/10:00-12:00/탄천]

탄천을 함께 걸으며 '자연'에 대해 생각합니다. 생태 교란종 식물에 대해 배우고, 화관과 꽃다발을 만들며 우리에게 필요한 예술적 해결방법을 고민합니다.

지금 여기의 그림자들

목탄 드로잉 애니메이션(13차시)
[08.18 - 11.10(목)/19:00-22:00]

목탄의 부드러운 어둠으로 오늘날 도시의 삶에서 마주치는 고민과 생각을 그려봅니다. 목탄 드로잉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함께 감상합니다.

성남블렌드

나만의 커피 블렌딩 프로젝트(2차시)
[10.19 - 10.26(수)/19:00-22:00]

목탄의 부드러운 어둠으로 오늘날 도시의 삶에서 마주치는 고민과 생각을 그려봅니다. 목탄 드로잉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함께 감상합니다.

일상 속의 예술

2022 경기시민예술학교 성남캠퍼스

2022 경기시민예술학교 성남캠퍼스는 일상 속의 예술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속 가능한 변화를 지향한다는 가치를 변함없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술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삶의 주도성을 회복하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내가 사는 도시를 알고 그 안의 나를 알아가는 데에 예술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국립오페라단

V I E W

- 34 **깊이보기**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피어나고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 40 **인터뷰**
우리 시대의 목소리
소프라노 상드린 피오
- 44 **이달의 작곡가**
사랑으로 풀피운 음악
작곡가 윌리엄 월튼
- 48 **미리보기 1**
내면을 탐구하는 여정
성남충진작가전 1 <문종훈: 玄>
- 50 **미리보기 2**
그 치열한 경쟁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연극만원 <최충면전>
- 51 **미리보기 3**
여름밤의 노래
소프라노 서선영 & 바리톤 고성현 듀오 리사이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피어나고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I VESPRI SICILIANI

주제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최고 작곡가로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타일의 변화와 원숙미를 더해간 대가다. 이 중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1855는 여러모로 특이한 작품이다. 시기적으로 베르디 전환기의 작품이라 그의 전형적 특징과는 꽤나 달라서 이번 국립오페라 프로젝트가 국내 초연일 정도로 자주 공연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역사적 배경에 입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을 다룬 것은 아닌데다가 극의 전개와 관련된 인물 구도는 픽션이고 결말은 순식간에 참혹하게 마무리된다.

파리 오페라의 의뢰로 만든 작품

이탈리아는 16세기 말 오페라 장르가 탄생한 이래 변함없이 창작의 중심에 있었지만 19세기 최대의 공연 시장은 프랑스 파리였다. 19세기 전반의 이탈리아 오페라를 대표하는 조아키노 로시니Gioacchino Rossini, 1792~1868, 빈첸초 벨리니Vincenzo Bellini, 1801~1835, 가에타노 도니체티Gaetano Donizetti, 1797~1848가 모두 전성기에 파리로 진출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인기였지만 최고의 극장인 파리 오페라는 자코모 마이어베어Giacomo Meyerbeer로 대표되는 프랑스 스타일의 '그랑도페라 grand opéra'를 절대적으로 선호했다. '그랑도페라'의 특징을 요약하면 우선 대본은 프랑스어이고, 음악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탈리아 오페라처럼 연극적 대사 대신 레치타치보 recitativo를 사용한다. 드라마의 배경은 역사적 사건에서 취재한 비극이 보통이고 그에 어울리는 장대한 무대 장치를 수반한다. 통상 5막 구성(이탈리아 오페라는 3막)이며, 옛 프

랑스 궁정 오페라의 전통이자 시각 효과를 중시하는 프랑스 관객의 취향이 반영된 발레 장면을 삽입하고 군중 합창을 중시한다. 이탈리아에서 이미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던 베르디는 1852년 봄에 파리 오페라와 새 오페라를 쓰기로 계약을 맺는다. 첫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 1855년에 초연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본 작가 외젠 스크리브 혹은 그에 준하는 작가가 쓴 4막이나 5막의 대본을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1854년 베르디는 스크리브가 보낸 대본 중에서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를 선택했다. 1282년 시칠리아 섬에서 일어난 프랑스인 집단 살해 사건을 다룬 역사극이어서 파리 만국 박람회용으로는 어쩐지 어울려 보이지 않지만, 훗날 이집트 카이로 극장의 의뢰로 작곡한 <아이다>에서도 이집트 공주의 연적인 에티오피아 공주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베르디다운 선택인 것 같다. 스크리브의 프랑스어 대본에 맞게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는 베르디의 첫 프랑스식 그랑도페라로 작곡되었



시칠리아 만중 사건의 장면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미켈레 라피사르디의 작품. <I vespri siciliani> 1864-1865, Michele Rapisardi, Castello Ursino, Cata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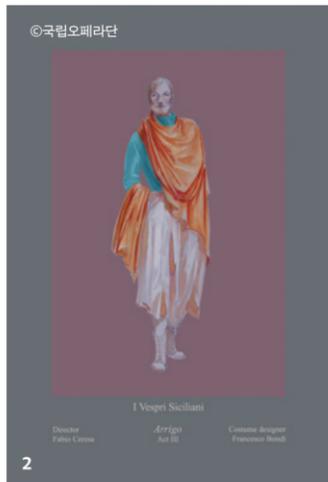
다. 1855년 6월의 파리 오페라 초연은 상당한 성공이었다.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였던 베를리오즈는 “베르디의 이전 작품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균주다운 위엄을 갖추고 있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파르마 가극장의 이탈리아어 초연 이래 지금은 이탈리아판으로 공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지만 구체적 줄거리는 픽션

드라마의 역사적 배경은 1282년 부활절 기간에 일어난 처절한 피의 살인극이다. 당시 시칠리아는 얼마 전까지의 통치 세력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호엔슈타우펜 가문을 몰아낸 프랑스 출신 앙주 가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앙주 가문은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할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칠리아를 착취하고 있었다. 이에 동로마 제국은 물론 시칠리아 섬을 탐내고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의 아라곤 연합 왕국은 시칠리아 사람들을 획책해 앙주 정권에 대한 반란 분위기를 조성했다. 3월 30일 저녁 기도의 종소리가 시칠리아의 수도 팔레르모에 울려 퍼진 것을 신호로 지배 계층인 프랑스인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반란군은 약 2주 만에 섬의 절반 이상을, 6주 후에는 메시나를 제외한 전역을 장악했고 그 사이 희생당한 프랑스인은 군인과 민간인 가릴 것 없이 수천 명에 달했다. 반란 세력은 로마 교황청에 시칠리아의 자유민 지위를 요청했으나 신성 로마 제국을 경계한 교황 측은 앙주 왕가의 복위를 명령했고, 이에 반발한 아라곤 측이 함대를 파견해 그 왕과 호엔슈타우펜 가문 출신의 왕비가 시칠리아의 공동 왕위에 오른다. 이때부터 아라곤 세력과 교황의 지지를 받는 앙주 세력이 20년 가까이 전쟁을 벌인다.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지만 구체적 줄거리는 픽션이다. 베르디가 이 대본을 선택했을 때 공감했을 이유를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제 오페라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보자. 호엔슈타우펜 가문의 엘레나(소프라노)는 자기 오빠를 죽인 앙주 가문의 총독 몽포르테(바리톤) 측에 인질로 잡혀 있지만 공녀로서 형식적인 예우는 받고 있다. 엘레나는 반프랑스 세력을 이끄는 젊은 리더 아리고(테너)를 사랑하는데, 아라곤에 망명했다가 돌아온 독립투사 프로치다는 부활절 축제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폭동을 일으키자며 엘레나와 아리고를 끌어들이는다. 그러던 중 아리고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를 잡아들이는 총독 몽포르테가 한때 사랑했던 시칠리아 여인이 남긴 편지를 통해 아리고가 자신의 사생아 아들임을 알게 된 것이다. 프로치다, 엘레나와 봉기를 약속했던 아리고는 몽포르테의 애타는 부정애정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총독궁 무도회에서 가면을 쓴 프로치다와 엘레나가 부친을 칼로 찌르려는 순간 제지한다. 몽포르테는 아리고의 아들다운 행동에 기뻐하고 두 반역자는 체포된다. 그런데 몽포르테가 엘레나와 프로치다의 사형 집행을 명령하자 아리고는 연인을 구하고자 몽포르테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진다. 몽포르테는 그 반대급부로 죄인들을 사면하는 것은 물론 친구 세력의 화합을 내세우며 아리고와 엘레나의 결혼까지 승낙한다. 엘레나와 아리고는 기꺼이 이렇게 된 상황에 기뻐하지만, 여전히 반란을 도모하는 프로치다는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성당 종소리를 신호로 무장 세력과 흥분한 시칠리아 사람들을 획책해 프랑스인들을 일거에 학살하는 피의 대참사극을 벌인다.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지만 구체적 줄거리는 픽션이다. 이는 외젠 스크리브가 이전에 썼던 오페라 대본을 역사적 배경만 바꿔 재탕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도니체

I VESPRI SICILIANI

티의 <알바 공작>1839이라는 미완성 오페라로 남은 원래 대본은 16세기 후반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하려는 플라드르, 그중에서도 현재의 벨기에 북부를 배경으로 했던 것이며, 등장인물들의 이름만 다를 뿐 인물 구도나 극의 진행은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관객 입장에서 시칠리아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인류 역사를 통해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온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 그 대립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갈등, 그 정신만큼은 높이 사

고 싶지만 피지배자의 저항이 지나친 폭력을 수반했을 때 빛어지는 희생 등등 베르디가 이 대본을 선택했을 때 공감했을 이유를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베르디 전환기의 음악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는 베르디 작품 목록에서 <리골레토>1851, <일 트로바토레>1853, <라 트라비아타>1853 다음에 자리하며 <시몬 보카네그라>1857, <가면무도회>1859, <운명의 힘>1862이 그 뒤를 잇는다. 베르디 최고의 인기작들과 원숙기의 진지한 걸작 사이에 위치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벨칸토’라는 이탈리아 특유의 ‘노래 중심’ 전통이 남아 있던 시기로부터, 심오한 극적 감동을 추구하는 시기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과도기적 작품이라 하겠다. 덕분에 <리골레토>와 <라 트라비아타>가 벨칸토 양식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면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에서는 그 거리가 한층 확고하게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프랑스 오페라로 작곡해야 했기에 베르디로서는 상당한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이 대표작들에 비해 극적 긴장감의 느슨함을 초래한 면도 없지 않다.

1,2,3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무대와 의상 스케치. 엘레나와 아리고의 의상(1,2)과 1막 무대 전경



©국립오페라단
I Vespri Siciliani
Regia Fabio Ceresa
Alto 1. Scena 1
Scena Tiziano Santi



조반니 볼디니가 그린 베르디의 초상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Production

지휘 | 세바스티안 랑 레싱
연출 | 파비오 체레사
무대 | 티치아노 산티
의상 | 프란체스코 본디
안무 | 마티아 아가티엘로
조명 | 마선영

Cast

엘레나 | 서선영, 김성은
아리고 | 강요셉, 국윤중
몽포르테 | 양준모
프로치다 | 최용조, 김대영 외
연주
코리아콤포케스트라,
노이오페라코러스, 코드공일예술연구소

6월 18일(토)~19일(일)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031-783-8000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는 <운명의 힘>과 더불어 베르디의 작품들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서곡을 갖고 있다. 극중 주요 장면의 멜로디를 메들리처럼 활용한 곡이며 독립적으로도 자주 연주된다. 2막에서 시칠리아로 막 돌아온 프로치다의 아리아 ‘오, 그대 팔레르모, 사랑스런 땅이여 O, tu Palermo’는 귀국에 대한 독립투사의 감격과 투쟁 의지를 드러낸다. 3막 1장에서는 몽포르테의 아리아 ‘아버지의 품에서 In braccio alle dovizie’와 이어지는 아리고와의 이중창 ‘깊은 동정심에 끌렸을 때 Quando al mio sen per te parlava’가 베르디 특유의 자식 사랑을 보여주는 명장면의 하나다. 3막 2장에 포함된 ‘사계’는 파리 관객을 위해 작곡한 베르디의 대표적인 발레 음악인데 이탈리아판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4막에서는 아리고의 독백 ‘눈물의 날, 고통의 날 Giorno di pianto, di fier dolore’과 이어지는 엘레나와의 사랑의 이중창이 중요하다. 마지막 5막에서는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인 엘레나의 ‘고맙습니다. 친구들 Merce, dilette amiche’을 들을 수 있다. 아리고와의 결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 곡은 시칠리아 혹은 볼레로풍의 경쾌한 곡이라 극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생똥맞기도 하다. 하지만 잠시 후 벌어질 학살극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면서 참혹한 피날레의 비극을 강화시키는 역설의 효과가 있다.

개성 넘치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기대하며

이번 공연의 연출은 2016년 인터내셔널 오페라 어워드의 젊은 연출가상을 수상한 이탈리아의 젊은 거장 파비오 체레사Fabio Ceresa가 맡는다. 그가 밝힌 연출의 변을 보면 비록 역사극이지만 현재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무엇

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그 행동을 추상화하는 연출 기법을 시도한다고 한다. 특히 저항을 초래하는 차별과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는 동시에 억압받는 자가 억압하는 자로, 억압하는 자가 억압받는 자로 바뀌는 역할의 전복에도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역사극을 보편극으로 해석하기 위해 무대도 파격적으로 꾸민다. 1막은 울타리가 쳐진 정원, 2막은 파도 한가운데의 배, 3막은 바다 한가운데의 섬, 4막은 우주의 행성, 5막은 나무가 그리는 낙원으로, 상당한 모험이 수반될 듯 싶다. 의상도 역사적 개념과 고증을 벗어나 추상화하는데, 압제자와 억압받는 자를 하늘색과 오렌지색으로 구별하되 흰색을 공통의 색으로 설정해 ‘평화’의 주제를 엿보도록 한다.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공연으로 우리나라 오페라계도 베르디의 중기 이후 작품을 모두 공연하는 기록을 갖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의미가 될 것이다. 물론 이번 공연의 성패는 이 작품에 숨겨진, 그러나 궁극의 주제인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얼마나 의미 있게, 수준 높게 표현하는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출자의 포부가 대단하고, 그가 꾸민 제작팀이 창의적이며,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최고 수준의 가창을 보장할 것이기에 우리 오페라 팬들에게 주어진 ‘뜻밖의 기회’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한다.

글 유형중 음악 칼럼니스트

음악 및 무용 칼럼니스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래식 감상실 무지크바움에서 음악·무용·인문학·영화 관련 강좌와 동호회를 진행한다. 저서로 『불멸의 목소리』 남성편과 여성편, 『신화와 클래식』 등이 있다.

2022성남중진작가전1
문종훈: 현 玄

2022.
06.03 (Fri)

-
07.24 (Sun)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우리 시대의 목소리

소프라노 상드린 피오

SANDRINE PIAU



© Sandrine Expilly

프랑스라는 나라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분야에서는 늘 ‘매혹적인 마이너리티’였다. 바로크 시대에도, 19세기 초중반에도 언제나 유럽 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음악 전통의 비주류라는 독특한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성악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가수들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른 곳과는 달랐다. 전 유럽이 이탈리아 출신의 카스트라토 가수들에 열광할 때에도 프랑스만은 시큰둥하게 반응했고, 테너 가수들도 매끄러운 팔세토 가장 기술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했다. 물론 20세기 중반부터는 이른바 ‘악파’나 연주자들의 전반적인 개성이 흐릿해지면서 프랑스적 특성도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특유의 섬세하고 우아한 매력은 남아 있다. 그런 ‘프랑스 소프라노’를 대표하는 상드린 피오가 우리나라에 온다.

피오는 나탈리 드세Natalie Dessay, 베로니크 장Véronique Gens, 파트리시아 프티봉Patricia Petibon 등 비슷한 연배의 프랑스 소프라노들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등장해서 지금까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가로, 이제 전성기의 끝자락에 있다고 할 만하다. 특히 상드린 피오는 베로니크 장과 더불어 윌리엄 크리스티William Christie, 마르크 민코프스키Marc Minkowski, 크리스토프 루세Christophe Rousset 등 프랑스 바로크 고음악의 거장들과 함께 황금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며, 헨델 오페라에서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성 가수를 꼽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만큼 탁월한 업적을 쌓았다. 피오의 가장 아름다운 면모를 드러내는 또 다른 분야는 가곡이다. 압도적인 음량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목소리로 연기를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성악가이며 여러 언어에 능한 피오에게 가곡은 잘 맞는 장갑처럼 어울리는 레퍼토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내한 리사이틀에서 상드린 피오는 에릭 르 사주Eric Le Sage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프랑스어-영어-독일어 가곡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들려준다. 1990년대부터 상드린

피오의 경력을 좇으며 그녀가 부르는 헨델, 라모, 드뷔시, 슈만을 들은 내게 이번 리사이틀은 처음이면서도 친숙한, 묘한 기시감을 안겨준다. 그녀와의 인터뷰 역시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 속에 신선하고 새로운 요소가 더해진 비슷한 느낌이었다. 질문은 음악 경력의 시작으로 가볍게 시작했다.

드디어 한국 청중 앞에 서시는군요. 한국에서 당신은 헨델을 비롯한 바로크 오페라의 탁월한 해석자로, 그리고 수잔 마노프Susan Manoff와 함께한 가곡 음반으로 주로 알려졌죠. 하지만 본래는 기악 연주자로 음악을 시작했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아주 기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 전 하프를 연주했어요. 어린 시절에 공주님이 나오는 동화책과 TV 프로그램에 열중한 경험이 하프를 선택하는데 크게 작용했지요. 사실 지금도 하프의 음향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프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라디오 프랑스 합창학교Maîtrise de Radio France에 입학했는데, 그곳에서 오페라라는 마법의 세계를 발견했지요. 학교 합창단이 파리 오페라 극장 공연에 정기적으로 참여했거

든요. 결국 오페라 무대의 그 특별한 분위기에 완전히 매혹되고 말았어요. 강렬한 조명 위로 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군요. 어린이에게는 정말 마법 같았답니다!

하프 연주와 합창단 경험이 독창자 경력에도 도움이 되었겠지요?

물론 큰 도움이 되었지요! 저는 기악 연주자처럼 악보를 읽죠. 악기를 전혀 연주하지 않는 가수들보다 훨씬 일찍부터 음악을 공부했거든요. 합창단에서 노래한 경험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독창자에게는 합창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열고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음악성의 근본이지요. 사실 독창자라 할지라도 홀로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든, 피아니스트든 동반자와의 교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요. 또 수잔 마노프, 다비드 카두슈David Kadouch, 에릭 르 사주같이 탁월한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노래하는 일은 대단한 특권이지요!

2019년 레자르 플로리상 Les Arts Florissants 40주년 기념 공연에서 당신이 크리스티와 애그뉴의 지휘로 라모 오페라의 명장면들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크리스티, 루세, 헤레베헤 같은 지휘자들과 함께했던 초창기도 생각났고요. 이들 지휘자와 정말 많은 연주를 하셨지요. 언제, 어떻게 그들과 처음 만났나요?

저 역시 까마득하게 느껴지네요! 필립 헤레베헤는 1985년에 오디션에서 처음 만났죠. 그의 합창단(라 샤렐 루아얄)에 들어가서 잠시 활동했거든요. 그때 오디션에서 만난 소프라노 이자벨 데로셰르 Isabelle Desrochers가 파리 음악원에서 윌리엄 크리스티가 가르치는 역사주의 연주 클래스에 관해서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윌리엄 크리스티의 클래스에 들어갔고, 그를 통해서 바로크 음악, 특히 몬테베르디와 프랑스 음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알반 베르크나 쇤베르크, 버르토크같이 복잡하고 타악기적인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그를 계기로 레자르 플로리상의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다 크리스티의 제안으로 독창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경력이 시작된 것이지요.

크리스티의 클래스에서 당시 크리스티의 조수로 있던 크리스토프(루세)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휘자가 되기도 전이었죠! 바로크 지휘자들이 모두 각자의 공연을 보러 다니던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가족 같았고, 그래서 참 많은 음악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구스타프 레온하르트,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지히스발트 카워킨, 르네 야콥스, 톤 코프만 같은 분들을 모두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다음 세대, 그러니까 제 또래의 젊은 음악가들과도 친구가 되었죠. 루세를

비롯해서 에마누엘 아임, 제롬 코레아스, 안드레아 마르콘, 파비오 비온디, 리날도 알레산드리니, 조반니 안토니니 등등이 생각나네요.

당신이 부르는 아리아 연주에서 다카포 da capo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바로크 오페라 연주에서 종종 듣게 되는, 음악과 별 관련이 없는 과시가 아니라 가사를 확실하게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죠. 다카포는 어떻게 부르시나요? 지휘자들과 상의하시는 편인가요?

지휘자에 따라 다르죠. 루세나 아임 같은 지휘자들은 전체적인 통일성과 가수에 어울리게 직접 만들어주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지휘자들은 가수에게 자유롭게 맡기죠. 개인적으로는 제롬 코레아스 Jérôme Correas가 만든 다카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레 팔라당 Les Paladins을 지휘하기 전에 가수로 활동했죠. 그래서 목소리, 특히 제 목소리를 잘 이해하기에 그의 장식은 정말 훌륭합니다!

최근에 당신이 베로니크 장과 함께 만든 멋진 새 음반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참 잘 어울리더군요. 당신에게 영감이나 영향을 준 성악가는 누가 있을까요?

성악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모두 마거릿 프라이스 Margaret Price를 꼽고 싶군요! 황금빛으로 빛나면서도 어딘가 어둡고 슬픈 느낌도 있는 목소리라고나 할까요. 그녀의 노래에 언제나 감동합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제가 들 어본 가장 아름다운 피아니시모(아주 여리게)로 노래할 수 있었어요. 평생 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펠리시티 로트 Dame Felicity Lott도 있는데, 음악성도 물론 훌륭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유쾌하면서도 겸손하고 정말 멋진 분이죠. 그야

말로 엄청난 인생 교훈이라고나 할까요.

최근에는 독일, 프랑스 가곡에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울어름에 루세와 함께 모차르트 <마술피리>에 출연하시더군요. 그 후에도 더 오페라 연주가 있나요?

리사이틀과 콘서트, 오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파미나는 제 목소리에 아주 잘 어울리는 배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설사 목소리가 아직 생생할지라도, 이제 무대에서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배역도 있지요. (나이 든 가수가 어린 배역을 부르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 오페라가 꼭 현실적이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이제 오페라 공연이 TV로 방영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이번 출연이 아마 제가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파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2022년 가을에 뮌헨에서 <코시 판 투테>의 데스피나 역으로 출연하고, 2023년 1월에는 몬테카를로에서 헨델 <알치나>의 모르가나로 출연합니다.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알치나 역을 맡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코벤트가든에서 현대 작곡가인 카이야 사리아호 Kaija Saariaho의 오페라 <무죄 Innocence>의 어머니 역을 노래합니다. <무죄>는 2021년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에서 초연되었는데, 저도 그 무대에 참여했지요.

2015년에 위그모어홀에서 당신의 리사이틀에 참석했는데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당신의 부드럽고 섬세한 해석에 깊이 감동했지요. 경력 초기부터 독일어와 영어 노래도 부르셨나요?

예, 전부터 언제나 독일어로 노래 부르기를 즐

CHIMÈRE

아했죠. 특히 슈만, 브람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가곡을요. 하지만 영어 노래는 수잔(마노프)을 만나면서부터 비로소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도움과 격려가 없었더라면 영어 노래는 아마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노래를 엮은 프로그램으로 리사이틀을 만드시는데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시나요?

맨 먼저 제게 아주 중요한 주제를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는 피아니스트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해당 주제나 그 감정을 표현한 악보와 가사를 함께 검토하죠.

때론 고고학자가 된 기분이 들죠! 저 자신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가곡을 통해서 들려주는 건 정말 멋진 기회입니다.

이번 성남아트센터 내한 연주회 프로그램에 관해서 좀 더 얘기해주세요. 폭넓은 양식과 취향을 아우른 작품들이더군요. 폴랑크와 릴리 불랑제의 노래들은 예상한 대로 아주 아름다웠는데, 앙드레 프레빈 작품처럼 신선한 작품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멜로디와 독일 리트, 그리고 때로는 영국과 미국 작곡가들의 노래를 엮어서 프로그램을 즐겨 만듭니다. 물론 모든 레퍼토

리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요. 이번 ‘키메라 Chimère’ 리사이틀에서 주제는 꿈을 향하는 ‘비행’입니다. 그 꿈은 아마 결국에는 깨지겠지만, 그래도 추락하기 전의 그 활력과 흥분, 황홀함은 참으로 아름답지요. 제게 뫼베, 바버, 프레빈의 작품을 알려준 수잔에게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특히 앙드레 프레빈의 작품은 진정 감정이 고양되는 순간이지요. 에밀리 디킨슨의 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이번에 한국 청중 앞에서 제게 특별한 개인적이고 내밀한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들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 청중과의 이상적인 첫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가곡을 통해서 들려주는 건 정말 멋진 기회입니다

© Sandrine Exilly



상드린 피오 & 에릭트 사쿠

6월 26일(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031-783-8000

글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다양한 방송과 강연, 저술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전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금호아카데미, 종횡당 등에서 클래식 음악 강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CPBC(가톨릭평화방송)FM <이준형의 비온드 클래식> 진행자, CBS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고정 게스트로 활동 중이다.

사랑으로 꽃피운 음악

작곡가 윌리엄 월튼



WILLIAM WALTON



윌리엄 월튼은 엘가, 본윌리엄스, 브리튼 등과 함께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특히 비올라 협주곡은 버르토크, 슈니트케의 작품과 함께 20세기의 중요한 비올라 협주곡으로 손꼽힌다. 낙제생이었던 그가 성공적인 작곡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재능과 노력, 그리고 이를 움직이게 한 사랑의 힘이였다.

작곡가로서의 첫발

영국 맨체스터 부근 올덤의 음악가 가정에서 태어난 윌리엄 월튼(Sir William Walton, 1902-1983)은 10세 때 옥스퍼드 대학교에 속한 크라이스트처치의 합창단 수습 단원으로 입학하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월튼의 음악적 재능은 금세 이곳의 학장 토머스 스트롱 박사의 눈에 띄었고, 그는 당시 옥스퍼드의 중요한 작곡가였던 휴버트 패리(Hubert Parry)에게 월튼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악보를 본 패리 또한 그의 재능을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아이는 많은 것을 갖고 있군요. 당신은 그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16세가 되자 월튼은 크라이스트처치의 학부생이 되었다. 당시 옥스퍼드 대학교 설립 이래 최연소 학부생으로 알려졌던 월튼은 이 학교의 교수였던 지휘자 휴 앨런에게서 현대음악을 배우는 한편, 대학 도서관에서 스트라빈스키, 드뷔시, 시벨리우스, 루셀 등 많은 동시대 작곡가들의 음악을 공부했다. 그런데 음악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었을까, 월튼은 그리스어와 대수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졸업하지 못했다. 미래가 불투명한 낙제생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 사람은 동창이자 절친이던 시인 사시버렐 시트웰(Sacheverell Sitwell)이었다. 그는 월튼을 런던의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역시 시인이던 자신의 형 오스버트(Osbert)와 누나 이디스(Edith)를 소개해주었다. 월튼은 명문가이자 문학 가문이었던 이곳에서 15년을 살면서 앙세르메와 부소니, 덴트 등에게서 개인 교습을 받았고,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에서 스트라빈스키와 거슈윈을 만나는 등 인간관계를 넓혔다. 그리고 신빈악파의 영향을 받은 현악 4중주 1번(1919-22)을 1923년 잘츠부르크 현대음악제에서 발표하는데, 이 곡에 큰 감명을 받은 알반 베르크

는 월튼과 쇤베르크의 만남을 주선하게 된다. 작곡가로서 월튼의 이름을 알린 <파사드 Façade>의 초연도 1923년이였다. 이 곡은 이디스 시트웰의 시를 낭독하면서 연주되는 풍자적인 실내악곡으로, 초연에서는 이디스가 무대 뒤에서 메가폰으로 낭독하고 월튼이 여섯 연주자를 지휘했다. 당시 연주평은 덴트 등 월튼과 친분이 있던 몇몇의 호평 외에는 비판 일색이었지만 이 곡은 곧 월튼의 초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다.

비올라 협주곡

이후 월튼은 영국의 개성 넘치는 젊은 작곡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상급 지휘자였던 토머스 비침 경이 당시 비올라 거장이었던 리오넬 터티스를 위한 비올라 협주곡 작곡을 제안한 것도 월튼이 아직 20대였던 1929년이였다. 월튼은 최선을 다해 작품을 완성했지만 여러 위대한 작품이 겪었던 관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터티스가 연주를 거절하고 악보를 돌려보낸 것이다. 터티스는 자서전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었다. “(월튼이) 내게 초연을 부탁했을 때 거절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의 음악 언어에 들어 있는 새로운 요소들은, 지금은 음악의 흐름이 매우 논리적이고 진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에는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았다.”

터티스의 거절 이후, 월튼은 당시 마침 영국 방문 일정이 있던 파울 힌데미트를 추천받았다. 독일의 뛰어난 작곡가이자 비올리스트였던 힌데미트는 비올라 협주곡의 초연 의뢰를 흔쾌히 수락했으며, 1929년 10월 3일 월튼의 지휘로 프롬스 무대에 올랐다. 청중은 월튼을 <파사드>의 경쾌한 작곡가로 알고 있었기에 이 곡의 진지함에 어리둥절해했지만, 월튼은 이

곡 덕분에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다. 평론가 에릭 블롬은 “근래에 작곡된 최고의 협주곡”이라고 평하며 월튼을 타고난 천재라 추켜세웠다. 터티스도 자신의 생각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1932년에 우스터에서 이 곡을 연주했다. 이 곡은 1961년에 관현악이 다소 수정되었으며 오늘날 대부분 개정판이 연주된다.

사랑의 힘으로

월튼의 음악은 1930년대부터 현대적인 색채가 줄고 낭만적인 스타일을 띠었다. 이것은 그가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의 첫 연인은 독일 출신의 미망인 임마 폰 되른베르크로,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둘의 관계는 1934년 임마가 일방적으로 월튼을 떠나면서 허무하게 끝났다. 월튼은 1932년에 그녀를 위한 교향곡 1번의 작곡을 시작해 3악장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마지막 4악장은 실연의 고통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월튼은 남편과 별거 중이던 22세 연상의 엘리자베스 워본 자작부인과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다. 절친 시트웰 남매와 워본 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자 월튼은 시트웰 남매를 떠나 새로운 집으로 옮겼고, 곧 중단된 교향곡 작곡을 재개하여 이듬해 8월에 완성했다. 초연은 1935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세계 각지에서 푸르트벵글러, 멩겔베르크, 유진 오먼디, 조지 셀 등 거장들이 이 곡을 지휘했다. 이후 1939년, 월튼은 워본과의 사랑을 표현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했다.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일컫는 야샤 하이페츠가 위촉한 이 곡은 짙은 낭만적 성향 때문에 월튼의 음악이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월튼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처음으로 평온한 나날을 지내고 있고, 혹평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관식 행진곡 '크라운 임페리얼'

이 시기에 작곡된 <크라운 임페리얼Crown Imperial> 또한 그의 높은 위상을 대변한다. 그는 1937년 에드워드 8세의 대관식을 위해 BBC로부터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에 버금가는 행진곡 작곡을 위촉받는 영광을 얻었다. 그런데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인 윌리스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내려놓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윌튼의 작품은 형의 왕위를 이어받은 조지 6세를 위한 작품이 되었다. 첫 부분 '왕의 알레그로'는 절도 있고 화려하며, 중간 부분에는 왕의 위엄을 표현하는 우아한 멜로디가 등장한다. 이러한 스케르초와 유사한 구조는 영국 행진곡의 전형적인 양식

이다. 1937년 5월 12일 대관식에서 조지 6세의 어머니인 메리 왕비의 입장 시에 연주된 이후, 윌튼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윌튼은 1953년에도 엘리자베스 2세를 위한 대관식 행진곡을 위촉받아 <보주와 홀 Orb and Sceptre>을 작곡했다. 전체적인 형식과 엘가를 연상시키는 특징은 <크라운 임페리얼>과 동일하지만 당김음 리듬과 템포 변화, 과감한 조성 변화, 다양한 주제의 복합적 구성으로 실제 행진보다는 행사용 연주곡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고난 끝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

세계를 도탄에 빠뜨린 제2차 세계 대전은 윌튼에게도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1941년 바이올린 협주곡의 런던 초연이 실패로 끝나고, 폭격으로 집이 파괴된 윌튼은 잉글랜드 중부 노샘프턴셔에 있는 워본의 저택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육군 영화 부대'의 음악고문으로서 전쟁 홍보 영화를 위한 음악을 작곡했다. 그는 영화음악을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전쟁 중이었던 1944년에 작곡한 <헨리 5세>는 큰 인기를 얻었다. 윌튼은 "영화음악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좋은 음악이 아니게 된다"고 말했지만, 이 작품은 여러 음악가에 의해 연주회용 모음곡으로 만들어졌다. 전쟁이 끝나고 행복도 잠시, 1948년에 워본이 세상을 떠나자 윌튼은 또다시 실의에 빠지고 말았다. 한 해 전에 BBC로부터 위촉받은 오페라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Troilus and Cressida>의 작곡도 중단되었다. 출판업자인 레슬리 부지는 기분 전환을 위해 그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저작권 컨퍼런스에 영국 대표로 보냈다. 그곳에서 윌튼은 22세 연하의

아르헨티나인 수사나 힐 파소를 만나 곧바로 사랑에 빠진다. 수사나는 윌튼의 청혼을 비웃었지만, 놀랍게도 그해 12월에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중단된 오페라 작곡이 재개되었으며, 여러 작품이 동시에 작곡되기 시작했다.

이스키아 섬에서의 마지막 순간

윌튼 부부는 1년을 반씩 나누어 런던과 이탈리아 이스키아Ischia섬에서 지내다가 1956년 이스키아섬에 정착했다. 그는 언덕 꼭대기에 집을 지었고, 아내 수사나는 '라 모르텔라La Mortella'라는 정원을 꾸몄다. 윌튼은 이곳에서 피아티고르스키를 위한 첼로 협주곡1956, 왕립 리버풀 필하모닉 협회의 위촉을 받은 교향곡 2번1960 등 주요 작품들을 완성했으며, 1967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았다. 작곡가로서는 엘가, 본윌리엄스, 브리튼에 이은 네 번째였다.

하지만 만년에는 작곡에 어려움을 느꼈다. 앙드레 프레빈으로부터 위촉받은 세 번째 교향곡은 손도 대지 못했고, 그저 기존 작품을 정리하고 수정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1983년 5월 8일, 윌튼은 80세의 나이로 이스키아섬에서 숨을 거두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세워진 그의 기념비는 엘가와 브리튼의 옆에 자리했다. 윌튼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라 모르텔라'는 1991년에 개방되어 관광객을 맞고 있으며, 2004년 '브릭스&스트레탄'에 의해 이탈리아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되었다.

글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
음악이 갖는 고전으로서의 가치와 시대적 의미를 고민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객석> <SPO> 등 음악전문지 기고와 공연 프로그램 해설, 해설 음악회 진행과 더불어 '화음챔버오케스트라'와 '현대음악앙상블 소리'의 공연 기획에도 참여하고 있다.



7월 21일(목) 오전 11시
마티네 콘서트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이병욱,
비올리스트 김세준의 연주로
윌튼의 대관식 행진곡과
비올라 협주곡을 감상할 수 있다

2022

BALLET

STARS

발레스타즈

TICKET OPEN **6.3.FRI 2PM**

6월 12일까지 조기예매 할인 20%



2022.7.23.SAT 3PM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주최 성남문화재단 티켓 R 5만원 | S 3만원 | A 2만원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문의 031-783-8000

내면을 탐구하는 여정

성남중진작가전 1 <문종훈: 玄>

MOON, JONG-HOON : PROFUNDITY



1



2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장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성남중진작가전을 기획해오고 있다.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세계를 새롭게 환기하여 조명함으로써 지역예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6월 3일부터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선보이는 <문종훈: 玄>은 2022년 첫 번째 성남중진작가전이다. 문종훈 작가의 근작에서 신작까지 30여 점의 작품이 반달갤러리 전관 1,2층에 걸쳐 전시된다.

문종훈의 작업은 작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추의 기록이다. ‘이 우주 속에 던져진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근원에 대한 접근을 통해 작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 정체성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정되었다. 양반은 양반, 하인은 하인, 대장 장이는 대장장이처럼 신분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책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반면 신분 제도가 없는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긴다. ‘나를 만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이고 내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아는 것도 또한 나’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되었다. 문종훈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과학·정치·철학 등 인류의 발자취를 연구하며 인간 문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매개체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작업을 선보인다. 과거를 나타내는 ‘고인돌’과 현대를 상징하는 고층 ‘빌딩’이 공존하며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한 데 얽혀 나타나는 상호 관계성에 대해 집중한다. 문종훈의 사진 작업 안에서는 피사체가 분명하지 않다. 장스터 촬영, 약간의 흔들림 등에서 오는 흐릿한 움직임은 어떤 대상보다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1 玄, 2021, 75.2x200cm, Pigment Print
2 玄, 2016, 100 x100cm, Digital Print

preview
성남중진작가전 1
<문종훈: 玄>

6월 3일(금)-7월 24일(일)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031-783-8000

“내 작업의 궁극은 보이는 형상과 그 형상의 해체에 있다. 나는 형상이 내게 보이는 시점부터 해체되어 흩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느낌을 시각화하여 한 화면에 표현한다. 그러한 과정은 ‘흐름’으로 대변되는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無’에서 ‘有’가 나오고 그것이 흩어져서 다시 ‘無’로 돌아가는 ‘순환’을 의미한다. ‘순환’은 시작과 끝이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이렇게 하나 되어 끊임없이 지속되는 ‘흐름’의 현상을 ‘玄’이라 한다.”

(작가 노트 중에서)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해왔던 시절이 있을 것이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먹고사는 일에 쫓겨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을 뿐이다. 문종훈은 현대 사회라는 시스템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한 인간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처럼 이 질문을 특유의 화법畫法으로 담아낸다. 작품 속 익숙한 듯 낯선 심리적 풍경들이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잠시 잊었던, 혹은 잃고 살았던 나를 돌아보고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민재홍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팀 과장

그 치열한 경쟁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연극만원 <최종면접>



관객의 사랑을 받은 대학로 화제작들을 가까이에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연극} 시리즈. 6월의 연극 <최종면접>은 한 대기업 최종 면접에 응시한 인물들의 고군분투를 통해 오로지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하는 팍팍한 현실을 그려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작품이다.

최종 1인의 선발을 앞두고 있는 한 대기업 사무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찾아온 네 명의 후보자가 대기하고 있는 사이, 면접관도 없이 바로 최종 면접이 시작된다. 이들의 면접은 일반적인 형식의 질의응답이 아니라 매우 독특하고 부조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아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독식하는 약육강식의 방법론, 이른바 '그린홀름 메소드'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면접은 4명의 응시자들에게 정식 응시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내게 하거나, 응시자의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약점을 들추어낸 뒤 이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서로 결정하게 하는 등 잔인하고 지독한 방식으로 서로를 의심하고 짓밟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들은 하나둘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나 탈락하고 결국 단 한 명의 응시자만이 남게 되지만, 연극은 후반부에 뜻밖의 반전을 보여준다.

스페인 작가 조르디 갈세란의 희곡 <그린홀름 메소드>를 한국적 맥락으로 번역, 각색한 연극 <최종면접>은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과 취업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로 우면서도 위트 있는 시선으로 그려낸 블랙코미디이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각각의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연극적인 재미도 쏠쏠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작품을 지배하는 정서는 묘한 씁쓸함과 허탈함이다. 처음에는 과연 이 중에서 누가 최종 합격할 것인가에 드라마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면접이 진행될수록 각 인물이 보여주는 거짓과 비열함, 추악한 민낯이 극 전체를 지배한다. 그러면서 결국 이 치열한 경쟁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선택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관객의 성찰을 이끌어내는 작품이다.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사진 제공 송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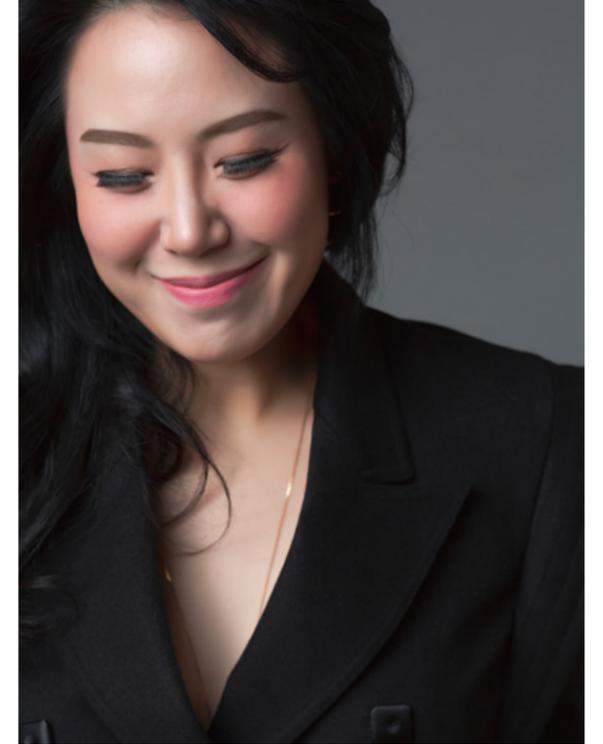
preview
연극만원 <최종면접>

6월 11일(토)-12일(일) 오후 2시·6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031-783-8000

세대는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룬 두 성악가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아름다운 음악, 소프라노 서선영과 바리톤 고성현의 듀오 리사이틀이 6월 29일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여름밤의 노래

소프라노 서선영 & 바리톤 고성현 듀오 리사이틀



preview
소프라노 서선영 &
바리톤 고성현 듀오 리사이틀

6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031-783-8000



소프라노 서선영과 바리톤 고성현은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성악가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스위스 바젤국립극장 솔리스트로 활동했던 서선영은 일찍이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서선영에게 찬사를 안겨준 <루살카>의 타이틀 롤부터 <나비부인>의 초조상과 <로엔그린> 엘자까지, 드라마틱한 음색과 연기력에 기반한 서선영의 스펙트럼은 실로 다채롭다.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콘서트 무대를 넘나들며 활약 중인 서선영은 6월 18~19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국립오페라단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에서도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폭발적인 성량과 표현력으로 일찌감치 세계 주요 성악 콩쿠르를 휩쓸며 드라마틱 바리톤으로 무대를 누볐던 고성현은 올해로 오페라 데뷔 40주년을 맞이했다. <리골레토> <오텔로> <나부코> <아이다> <시몬 보카네그라> <맥베스> <팔리아치> 등 수많은 작품에서 주역으로 활약해온 그는 한양대학교 성악과 교수이자 젊은 성악가들의 롤 모델로 후학 양성에 힘을 쏟는 한편, 동시대 우리 음악의 전파에도 각별한 애정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곡가 최진의 가곡 '시간에 기대어'는 고성현이 음반으로 처음 소개한 이후 많은 성악가들과 가수들이 노래하며 사랑받는 곡이다.

서선영과 고성현은 이번 무대에서 다양한 색깔의 오페라 아리아와 우리 가곡을 준비했다. 모차르트 <돈 조반니> 중 돈 조반니와 체를리나의 이중창 '우리 두 손을 맞잡고 *La ci darem la mano*',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중 '들리느냐? 가혹한 눈물의 소리가 *Udite? come albeggi?*'는 두 성악가의 서정적이면서도 극적인 호흡이 기대되는 순서다. 서선영은 베르디 <오텔로> 중 데스테모나의 '아베 마리아', 마스네 <에로디아드 Hérodiade> 중 살로메의 아리아 '그는 부드럽고 친절해요 *Il est Doux, il est bon*', 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 '돌아가는 꽃' '마중' '시소타기'를, 고성현은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가곡 '보리밭' '시간에 기대어', 드라마 <대장금> OST로 사랑받았던 '하망연' 등을 들려준다. 시공을 초월해 사랑받은 주옥같은 아리아, 서정적인 노랫말과 선율의 우리 가곡들이 청중의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최종면접 4인이 '그린홀름 방법론'이라는 면접방식을 통해 승패 결정.
오직 강한개체만이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이론과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에 근거한 면접방식을 통한 블랙코미디극

El Metodo Groholm
최종면접

6.11~12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 전석 10,000원

토·일 2pm, 6pm | 문의 031-783-8000 |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ART
CURATOR
FOR

- 54 기후변화와 예술
슬픔과 상실을 다루는 예술이 마주한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예술
- 56 기술과 예술
여기는 채소, 저기는 과일, 잘 키워보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탄생하는 또 다른 나
- 58 일상에서의 디자인
문자 오디세이
글자에 담긴 디자인
- 62 미술 길라잡이
어디에서 작품을 구매해야 할까요
아트페어부터 옥션까지,
성공적인 컬렉션을 위한 팁
- 64 영화 속 클래식
스필버그식 네버랜드를 꿈꾸며
<레디 플레이어 원>과 <환상 교향곡>
- 66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의외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하위문화의 향연
문화의 양조장, 베를린

슬픔과 상실을 다루는 예술이 마주한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예술



1

1 국립극단의 <기후비상사태:리허설> 포스터
2 이혜원 작가의 <바위가 되는 법>.
숯방울로 야생 멧돼지의 죽음을 형상화했다

영국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날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곤 한다. 하루에 사계절을 모두 겪을 수 있는 그들의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일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대화 속에 날씨와 기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올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 비는 또 얼마나 내릴까? 2020년 장장 54일 동안 이어졌던 장마를 이야기하다, 다음 해 여름을 덮쳤던 폭염을 떠올린다. 폭염, 가뭄, 장마, 한파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팬데믹과 함께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이 재난의 원인을 찾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확산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갖 지표와 미래 시나리오를 내세워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려움과 공포, 막막함에 이어 무기력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위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 블루와 함께 기후 우울증마저 겪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간과 물에 대하여』를 저술한 아이슬란드 작가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은 기후위기를 백색 잡음에 비유한다. 화산 폭발음은 굉장하지만 녹음하면 소리가 뭉개져 백색 잡음밖에 들리지 않는다. 기후 위기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이슈이지만 너무나 크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우리 삶에 밀착되지 않아 그저 백색 잡음처럼 쉽게 흩어져버리기 쉽다. 이 지점에서 예술가와 예술을 생각해본다. 과학자, 활동가가 아닌 예술가는 인류를 위협하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와 어떻게 만나야 할까? 최근 몇 년간 예술계에서는 기후위기와 마주하며 예술적 방법론을 찾고 있는 예술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2020년부터 강원도 화천 문화예술공간 예술터밭에서는 매년 기후변화 레지던시¹⁾를 진행하고 있다. 연극, 무용, 거리극, 시각, 그림책, 영화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와 리서처, 과학자, 활동가들이 강연과 토론, 생태 체험, 참여 작가들 간의 워크숍 등을 공유한다. 기후변화를 과학적·기상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사회학적·인권학적 관점 등 다양한 시각으로 폭넓게 바라보고 접근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알면 알수록 이 시급한 문제를

위한 대범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운데, 예술은 그저 미약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술가들의 측정 단위인 슬픔과 분노, 그리고 예술의 '상상의 힘'을 믿으며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 나, 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기 시작했다. 주제는 야생 멧돼지와 아프리카 열병, 채식과 기후위기, 미래의 재난, 착취의 구조, 숲과 기후위기, 기후난민, 비인간 서사 등 많은 줄기로 뻗어나갔다. 오픈 텃밭에서 발표한 이혜원 작가의 <바위가 되는 법>²⁾은 감염병의 원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절멸의 대상이 되어 죽어간 야생 멧돼지의 이야기이다. 관객 참여 이동형 공연으로, 관객은 작품 속 인물 A에게 자신을 대입하며 이야기를 따라 야외 공간을 이동한다. 평소 찾지 않는 건물 뒤편으로 몸을 들이자, 숲의 일부처럼 보이는 멧돼지 한 마리가(숯방울로 만들어진) 죽어 있다. 순간 숨이 멎는다. 작품은 숲에서 쫓기다 죽어간 멧돼지의 삶에 대한 경의이자 애도이며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실체 없는 공포에 대해 인간이 저지르는 끔찍한 현실의 목도이다. 박은주 작가의 <기체극장>은 기후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하는 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작가는 공기의 특성을 리서치하며 서울과 화천 곳곳에서 공기를 수집하고 기록했다. 작가는 자신이 예민하게 감각한 공기의 냄새와 질감을 공유하며, '봄밤'처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대기의 상태와 감각을 기후변화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있다. 윤종연 작가의 <이동하는 세계>³⁾는 기후재난으

로 삶의 터전에서 떠밀려 나간 세상의 끝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는 절박한 세계 속 인간 서사에 주목한다. 얼어붙은 땅으로 곤두박질쳐지고 아슬아슬하게 버티며 서 있는 작가의 몸은 온전히 그들의 삶을 담고 있다. 레지던시 이후 작가는 약자에게로 이어지는 피해의 고리와 그 사이에 엉켜 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찾아다녔고, 올봄 <코끼리 택시>의 운행을 시작했다. 코끼리 택시를 타기가 쉽지는 않다. 추첨을 통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탑승한 택시는 남산에서 시작해 종로의 좁은 뒷골목을 지나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른다. 방 안에 갇혀 있는 코끼리를 만나러 가는 일종의 택시 여행 상품이다. 작가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덮어두고 아무도 언급하려 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내는 '방 안의 코끼리'에 비유하며, 기후재난으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으로 승객을 끌고 들어간다. 명동예술극장에서는 기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전유환 작·연출 연극 <기후비상사태: 리허설>이 6월 5일까지 공연 중이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보다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기는 비상사태가 되었다. 작품은 언젠가 가라앉았는지 모른다. 잠재적 재난의 공간,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는 작가가 기후위기를 만나고, 부정하고, 우울해하고, 협상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보여준다. 공연 중 배우는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의 대사를 외친다. **“재앙이란 사실 공동의 문제이지만, 일단 닥치면 쉽사리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전쟁만큼이나 페스**

트가 있어왔다. 그렇지만 전쟁이든 페스트든 사람들은 늘 속수무책이다.”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2022년 지금의 상황이 페스트가 나온 1947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씁쓸하다. 연극의 끝부분에서, 작품을 이끌어 가는 화자인 작가는 기후위에 대한 예술가와 작가들의 책임을 언급하며 예술이, 예술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 작가 아미타브 고시 Amitav Ghosh의 말과도 겹친다. “기후위기는 문화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이다. 미래 세대가 돌아보면 그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현 시대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비난하겠지만, 가능성에 대한 상상은 정치인과 관료들만의 일이 아니기에 예술가와 작가들에게도 동등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글 박지선 독립 프로듀서
연극·무용·다원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기획자로 축제, 레지던시 기획, 공연예술 작품 제작 및 국제 네트워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경제, 기술과 예술, 기후와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가와 새로운 탐험을 하며 예술의 동시대성을 탐구하고 있다.

1) 예술터밭 예술가 레지던시-기후변화 <http://artstutbatclimatechange.com>
2) 이혜원 <바위가 되는 법> 작품 내용 및 영상 http://artstutbatclimatechange.com/?page_id=112
3) 윤종연 <이동하는 세계> 작품 내용 및 영상 http://artstutbatclimatechange.com/?page_id=770

여기는 채소, 저기는 과일, 잘 키워보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탄생하는 또 다른 나

소셜네트워크에는 특별한 내가 있다. 이게 다 허투루 만든 모습이 아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도 있기에 오늘도 걱정과 고민, 끝이 없다.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SNS다.

현실계: “내가 진짜야. 만져봐!”

가상계: “내가 진짜야. 팔로우 해!”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다. 1999년 제대를 하고 보니 인터넷 세상이 열렸다. 물론 '지직지직' 하며 외계인 소리를 내는 모뎀과 동고동락하는 느린 속도였지만 빠른 속도로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오지 않은 이상, 우선은 신기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도 어느 친구들처럼 인터넷의 바다에 빠졌다. 풍덩! 세기말의 분위기 속에 두 개의 양대 산맥이 탄생했다. 우선 '싸이월드!' '사이좋은 세상'을 표방하며 미니 홈페이지에서는 각자 내방을 꾸리고 친구들을 맞이했다. 다음, '아이러브스쿨!' '동창 만나기를 유도하며 학교 커뮤니티에서 여러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을 만났다. 개인적으로 1999년 9월 9일 저녁 7시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기다렸던 특별한 날이다. 6학년 때 산수특기부에 등록했는데, 미모의 담당 선생님께서 1999년 9월 9일 저녁 9시에 세상이 망한다는 농을 던지시며 저녁 7시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 '마지막 만찬'을 하라고 제안하신 것이다. 그래서 진짜 나갔다. 다행히 초등학교 5~6학년을 함께 다니고 같은 특기부였던 추억의 여학생과 조우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다른 이들을 기다리다 결국에는 둘이서만 오붓하게 저녁 먹고 헤어졌다. '아이러브스쿨'은 그 해 9월에 시작했다. 즉, 세상은 망하지 않았고 친구들의 범위는 한껏 넓어졌다. 내 친구, 다 모여! 그런데 당시에 양대 산맥, 한계가 있었다. 우선 인터넷 속도가 느렸다. 그래서 은근 귀찮아졌다. 다음, 당시에는 스마트폰과 카톡 같은 천상의 콤비(단짝)가 없었다. 그래서 은근 소원해졌다. 다음, 친구를 만드는 데 요즘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일방 팔로우 개념이 아니었다. 그래서 은근 보수적이었다. 물론 본격적인 SNS 시대가 처음 개막하다 보니 기술력과 경영 마인드 등, 내부적인 문제도 컸다. 그래서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친구들아, 다음 생에!

본격적인 1인 방송국 시대의 개막

점차 더 나은 기술력과 유연한 경영으로 승승장구하는 글로벌 기업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2004년 '페이스북', 2005년 '유튜브', 2006년 '트위터', 2010년 '인스타그램', 2011년 '위챗', 2016년 '틱톡' 등, 여러 SNS가 유행하며 기호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채널을 선택하고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동안 나는 실제 '임상반'에 충실했다. 예컨대, 아직까지도 내 아이디는 내 이름.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겨본 기억도 거의 없다. 그리고 2008년부터 '페이스북', 2015년부터 '인스타그램'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내 이름으로.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나름대로 발동이 걸렸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친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뉴스로 인해 그들의 세세한 일상까지도 내 마음속으로 훑 들어오니 세상이 더욱 넓어졌다. 그리고 보니 다들 1인 방송국 사장님 아닌가? 다들 자기 삶을 스스로의 방송 방침에 따라 세상으로 송출하느라 인생 더 바빠진 모양. 그런데 과연 그 방송은 실제의 모방일까? 물론 그런 경우도, 혹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 관심은 후자, 즉 방송이 또 다른 실체가 되는 경우에 끌린다. 이를테면 직장에서의 내 삶이 나의 중요한 부분인듯, '인스타그램'을 소위 '먹스타그램'으로 만들어 끊임없이 식탐을 자극하는 활동도 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누가 전자가 후자보다 감히 가치 있다 말할 수 있는가? 예컨대, 후자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전자 자격으로 평가받는다면 세상 참 각박하다. 굳이 본캐(본래 캐릭터)와 부캐(부수적인 캐릭터)로 나누지 말고 후자는 그냥 후자로 봐줘, 아니, 그냥 딴 사람이라고! 하루는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인스타그램' 상에서

부캐가 몇 명이나고, 역시나 많았다. 만약에 깔끔하게 채널을 나누려면 우선 내 안에 있는 작은 아이들의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 다음, 채널 별로 방송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다음, 열심히 관련 자료를 게시해야 한다. 나아가,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교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파티션을 잘 나누다 보면 부캐의 '부(附)자'는 어느새 '본(本)자'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아, 그냥 다른 인격체가 될 것이다. 여하튼 인격을 분화하려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기억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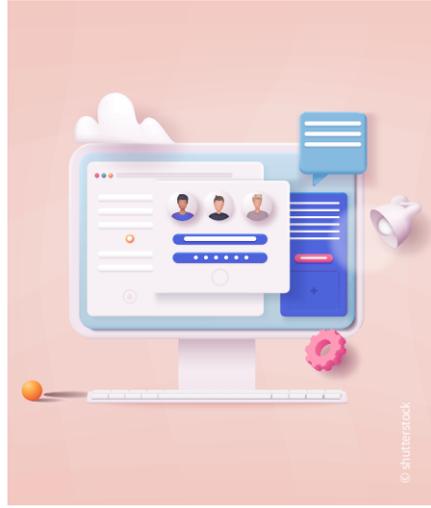
내 욕망이 투사된 거울 자아

어떤 학생이 그랬다. 요즘 누가 '페이스북'을 하나고. 의아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보다 인기인 모양이다. 내가 한 회사(Meta)에서 둘 다 운영한다 했더니 몰랐다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생각해 보면 참 영악한 경영이다.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은 문자가 중요하다. 즉, 게시물 읽기를 유도한다. 그러다 보면 이전 게시물은 계속 아래로 밀린다. 그래서 여럿을 한눈에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게시물을 읽으면 행간의 묘미를 느끼며 모종의 친밀감이 생긴다. 그래서인지 여기서는 친구가 5,000명이 한계다. 그리고 서로 동의해야 친구가 된다. 그리고 보니 온라인치고는 친밀한 작은 동네다. 그래도 이미지를 잔뜩 올리는 등 자신의 감각을 과시하기,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만으로 상대방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건 어렵기 마련. 반면, '인스타그램'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즉, 이미지 보기를 유도한다. 이를테면 첫 화면에 정사각형으로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니 여럿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순식간에 상대방에 대한 첫인

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인지 여기서는 친구가 제한이 없다. 그리고 서로 동의할 필요 없이 내가 팔로우하면 그만이다. 물론 상대방에게 잘릴 수도 있지만 뇌두는 경우가 많은 듯하고. 그리고 보니 상당히 번잡한 도심이다. 그래도 꼼꼼히 맞팔을 하거나 댓글을 남기는 등, '페이스북'과 같이 친구 간의 친밀도를 누리기,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소중한 친구는 있게 마련. 그런데 상대방을 아직 잘 모르더라도 방문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마치 영화 포스터만 보아도 공포물, 혹은 멜로물 등 장르가 선명히 드러나듯이. 물론 감독 스타로가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소위 종합 선물 세트를 의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장르 당 하나의 일관된 경향을 우선적으로 유지하려는 기운이 강하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경향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는 전문가다'와 같은 사업 홍보! 여기서는 자신의 작품, 상품, 경력, 실적 등을 홍보한다. 다음, '나는 센터하다'와 같은 내 삶의 여유! 여기서는 아름다운 풍경과 관조적인 삶의 자세 등을 드러낸다. 다음, '나는 아프다'와 같은 연민 자극! 여기서는 때로는 자학적으로 가감 없이 자신의 바닥을 드러낸다. 다음, '나는 웃자요'와 같은 유머 만점! 여기서는 다양한 웃음거리를 제공한다. 다음, '나는 멋지다'와 같은 감각 찬미! 여기서는 독특한 패션 등,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멋지게 치장한다. 다음, '나는 사유한다'와 같은 철학적 논쟁! 여기서는 자신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한다. 다음, '나는 정치한다'와 같은 당파적 여론! 여기서는 여러 기사를 공유하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다. 물론 이 외에도 분류하자면 끝이 없다. 이와 같이 특정 채널마다 특정 경향이 두드러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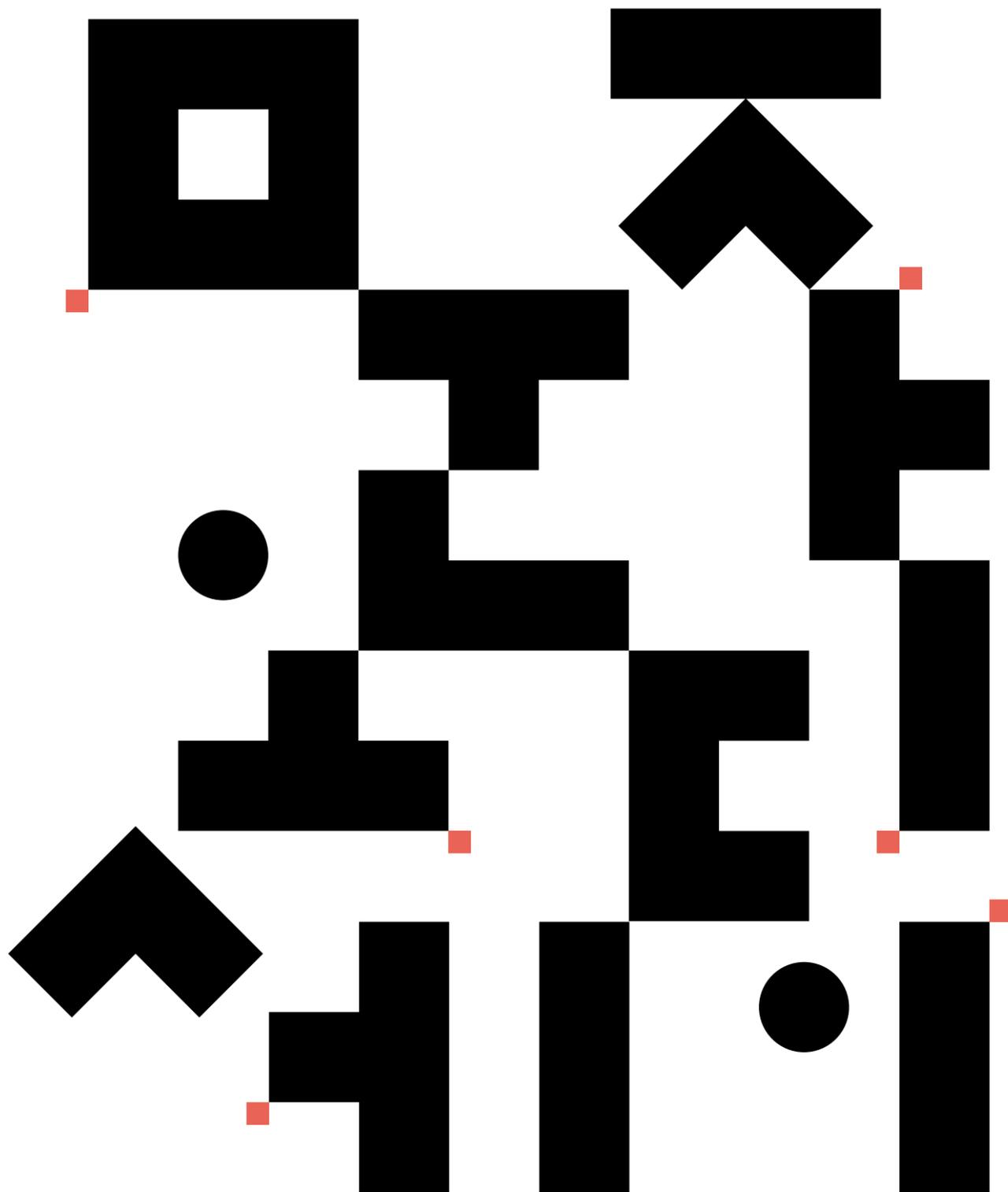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경향도 추구하고 싶다면 다른 채널을 만드는 것이 여러모로 수월하다. 그리고 보면 한 채널은 곧 한 생명이다. 이를 성장, 발달시키는 것은 관리자로서 자신의 몫이고, 결국 특정 채널을 특정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싸잡아 오해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하필이면 그 사람이 기왕이면 그 채널을 통해 보여주고자 의도했던 특정 작품 하나일 뿐이다. 이를테면 남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찬 채널을 일구는 사람은 거기서만큼은 엄청 세다. 자신에게 절실한 욕망이 거기서 그런 식으로 발현되었기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채널에서 그가 일관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자기 욕망이 결과적으로 족쇄의 의무감이 되었다면, 혹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의 책임, 맞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은 다양하며 선택 가능하다. 이를테면 훌쩍해지려면 그런 거울 앞에 서자. 혹은, 몽환적으로 보려면 김 서린 거울이 좋겠다. 아름답게 보고 싶으면 뷰티 앱은 어떻게? 맞아, 거울이 남이냐? 거울이 곧 나다. 난 날 못 보니까. 오히려 거울이 날 보잖아? 그리고 지천에 널린 게 거울이다. 즉, 이 거울엔 채소, 저 거울엔 과일, 거울은 내 텃밭. 그래, '페이스북'에서 난 어떤 거울인가? '인스타그램'은? 기다려, 좀 뒤고 볼게. 난 아무래도 멋진 쪽이 좋은 거 같아. 아니, 너도? 다들 왜 이래... 노래방 가면 꼭 자기 멋진 노래만 부르려는 종족이 있더라. 그래, 우리 못 말린다.

글 임상빈 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미술 작품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 교육과 예술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자신만의 예술적인 통찰을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심화, 확장된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다. www.sangbini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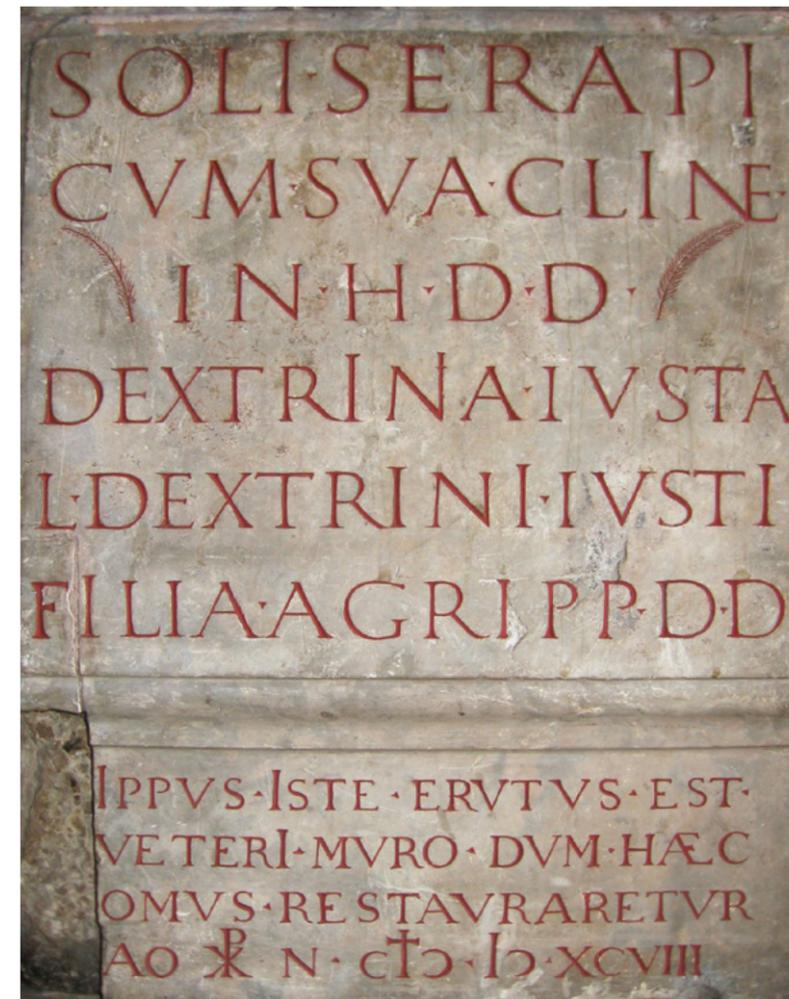


문자 오디세이

글자에 담긴 디자인



네모 칸이 쳐진 공책에 연필로 ‘ㄱ’ ‘ㅇ’ ‘어머니’ ‘아버지’ 등을 쓰면서 읽기와 쓰기를 배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툴렀던 읽기는 점차 숙달되고 삐뚤빼뚤했던 글씨들도 나름대로 모양새를 갖춰 나간다. 오랜 세월 동안 글씨를 쓰면 잘 쓰든 못 쓰든 자신의 성정이 담긴 필체가 만들어진다. 영혼이 담긴 수제 手寫 글씨체!



세리프가 달린 로마체

새의 뾰족한 입

물과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다. 글자도 그렇다. 글자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인류는 이 도구에도 당대의 사상과 이용 가능한 기술을 반영해 다양한 글자체로 발전시켰다. 초기에는 작대기나 뾰족한 돌맹이 따위를 사용했겠지만, 붓이나 펜 같은 발전된 필기구가 등장하고 이를 오래 사용하면서 필기구의 특성이 담긴 글씨가 만들어졌다. 붓은 부드럽고 유연한 글씨체를, 펜은 날카롭고 힘찬 글씨체를 만들었다. 붓과 펜을 사용했던 때의 복고적 정서를 환기시키는 캘리그래피 calligraphy가 새삼 인기를 끄는 시절이다. 유명한 글씨체는 꾸준히 글씨를 써왔던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붓으로 글씨를 쓰던 시절, 석봉체는 사자관(임금이 내리는 문서나 외교 문서를 쓰는

관리)이었던 한호의 글씨였고 추사체는 학자이자 평생 글씨에 천착했던 김정희의 글씨였다. 중국의 왕희지체나 안진경체 역시 글씨와 문장을 가까이 했던 그들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글자는 보통 인쇄된 것이다. 복제를 전제로 특정한 구조와 모양으로 개발한 글자들을 ‘글자체 font’ 또는 ‘꼴꼴’이라고 한다. 필기 글씨체는 개인의 감각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인쇄된 글자체에는 기술, 시대정신, 미학이 반영된다. 모든 글자는 ‘부리체 serif’와 ‘민부리체 sans-serif’로 구분된다. ‘부리’는 새의 뾰족한 입을 뜻하고 ‘세리프’는 돌기를 말한다. 산세리프에서의 ‘산 sans’은 ‘없음 none’을 뜻하는 프랑스어다. 글자의 부리는 기존의 펜이나 붓으로 쓴 글씨를 활자화하는 과정

에서 장식 요소로 남은 것이다. 아직까지 지속되는 손 글씨의 화석화된 흔적이다.

무표정한 글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라틴 알파벳은 고대 이집트와 페니키아의 상형문자, 고대 그리스 문자를 통해 성립된 로마 roman체를 근간으로 한다. 로마체는 로마 제국기에 썼던 글자체로 당시 유행한 로마네스크(로마식) 건축 양식과 닮았다.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 중 하나가 기둥이 열 지어 서 있고 기둥 윗부분에 장식이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양식은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지만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명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로마네스크 건축의 기둥은 중간이 위아래보다 가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 부분

을 조금 더 불룩하게 만들었다. 이런 양식을 엔타시스entasis, 배흘림기둥라고 한다. 로만체 역시 세로 획의 중간 부분이 약간 더 불룩하고 위쪽에는 건축 기둥에서의 장식처럼 세리프가 달려 있다. 로만체는 애초 대문자로만 운영되었지만 중세 이후 읽고 쓰기 편하도록 소문자가 추가되었다. 바야흐로 우아한 형태의 고전적 세리프체가 완성되어 '올드로 만체'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글자 기둥의 불룩했던 부분을 직선으로 변경한 것을 '모던로만체'라고 한다.

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에 의해 멸망했다. 역사적인 원망 때문인지 전통 양식에서 벗어난 생경한 양식을 고트 양식(고딕식)이라고 했다. 글자에서도 기존의 로만체와는 다른, 세리프가 없거나 투박하고 거친 것들을 고딕체라 지칭했다. 사실 고트족은 고딕 양식과는 별 상관이 없었지만, 낯선 것을 야만으로 폄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고딕이라는 수식은 등장할 당시에는 무시와 경멸의 표현이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으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변하면서 복제(인쇄)를 위한 글자 원형이 필요해졌다. 본격적으로 글자체가 등장한 것이다. 로만체가 꾸준히 사용되고 있었지만, 중세의 종식과 르네상스 혁명,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가 열렸다. 단순함, 명료함이라는 기치하에 글자에도 근대 정신이 담기게 되었다.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친 기능주의 미학이다. 20세기 초반, 건축의 주요 이념은 통칭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양식으로 일컬어지는 기능주의적 단순함이었다. 장식 없는 육면체 형태, 평평한 흰 벽, 넓은 유리창, 개방형 평면 등이 특징이다. 서울 청계로에 있는 31빌딩이 이러한 양식이다. 이 시기에 맞물려 등장한 글자체가 세리프가 없는 유니버

스universe, 우주, 만물체다. 이름처럼 다양한 매체와 목적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국제'나 '유니버스'는 모두 통합, 보편, 획일성을 지향한다. 고대,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과 로만체 글자가 우아한 장식미를 공유했듯이 근대, 국제주의 건축과 유니버스체도 장식의 배제라는 조형적인 연대를 이뤘다. 그것이 '시대정신'이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된 국제주의 글자체는 유니버스체와 거의 흡사한 헬베티카Helvetica체로 단순한 형태와 명료한 가독성, 중립적인 성격을 띤다. 세리프가 달린 우아한 로만체는 고전성, 세리프가 없는 무표정의 헬베티카체는 현대성modernity을 상징한다.

네모 밖으로 나간 한글

글자는 모두 그림에서 기호를 거쳐 마침내 문자 체계로 완성됐지만, 한글은 조선의 임금이었던 세종과 학자들이 정책적·계획적으로 만든 글자다. 만드기와 시기가 분명하다는 점, 제자 원리와 사용법에 대한 해설서가 있다는 점 등 문자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글자로 꼽힌다. 한글 글자도 부리체인 명조체 계열과 민부리체인 고딕체 계열로 나뉜다. 중국 '명(明)나라 시대[朝]의 글자체'라는 뜻이 담긴 명조체는 보다 정확히는 송조체(宋朝體)에 가깝지만, 근대기 일본에서 번역한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했던 연유 때문이다. 고딕체도 마찬가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딕'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지금껏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 명조체를 '바탕체'로, 고딕체를 '돋움체'로 변경했다. 연구에 따르면 부리가 있는 글씨가 눈에 더 잘 인식된다. 오래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책이나 신문 등의 본문으로는 바탕체가 적합하고,

제목이나 돋보여야 할 글자로는 돋움체가 효과적이다. 바탕체는 음전하고 돋움체는 당당하다. 표음 문자인 알파벳은 자모가 일렬로 배열되는 선(線)적 구조, 표의 문자인 한자는 각 글자가 완성형인 점(點)적 구조를 띤다. 한글이 하나의 사각형 덩어리로 느껴지는 것은 만들 당시에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한글 음절을 한자와 동일한 구조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은 자모가 상하좌우로 조합되기 때문에 선적·점적 특성을 모두 가지게 된다. 그런 까닭인지 요즘에는 네모틀을 벗어난 탈네모틀 글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네모틀 글자란 한자처럼 모든 글자를 사각형 틀에 맞춘 것이다.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한 음절의 폭과 높이가 같다. 가령, '가'와 '각'이라는 글씨에서는 자모가 'ㄱ' 'ㅏ'로 같지만, 받침이 있는 '각'에서는 '가'에서보다 'ㄱ'이 작아지거나 납작해진다. 글자의 전체 모양을 사각형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반면 탈네모틀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하는 공간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받침이 있거나 획이 많으면 사각형 틀을 벗어나게 된다. 자모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글자의 폭이나 길이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던 네모틀 글씨는 가로쓰기 방식에 적합하지 않고 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롭게 도입된 폰트 개발 프로그램은 탈네모틀 글자체의 개발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림이고 싶은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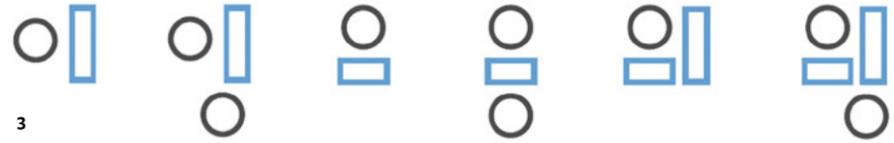
그림에서 기원한 글씨는 태생적으로 그림으로서의 유전자가 남아 있다. 알파벳 문화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활판술라는 장르가 출현했다. 알파벳은 낱글자를 배열하여 단어를 만들고 행과 구절을 이루면서 특정한 의미를 드러



1



2 탈네모틀 글자로 표현한 김주성의 '입춘대길 건양다경'
3 탈네모틀 글자로 표현된 한재준의 '한글로 세상을 밝혀라'
4 탈네모틀 글자의 자모 배치 구조
5 자소(ㄷ, ㅏ, ㅑ, ㅓ)로 구성된 한글 조형, 한재준의 '붉은 한글'



3



4

낸다. 조판 과정에서 단어와 문장은 선으로, 구절은 면으로 지각되는데,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환원된 요소는 조형적 실험과 시각적 유희를 자극한다. 글자들을 다각적으로 운용해 대비와 긴장, 호기심 등, '구조의 미'를 의도하는 것이 타이포그래피다. 한자는 글자의 군집보다는 각 글자 간의 통일과 균형, 심리적 조화라는 '내적 의미'를 중시한다. 선과 면으로 인식되는 알파벳이 타이포그래피 표현에 유리하다면 점과 점으로 인식되는 상형 문자 기반의 한자는 픽토그래피pictography, 그림 문자 표현에 적합하다. 그렇다면 한글은?

알파벳 타이포그래피가 유입되면서 한글에서도 타이포그래피가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글은 선조·점조의 리듬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타이포그래피나 픽토그래피에서 알파벳이나 한자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오히려 독창적인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개척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한글의 조형적 변주를 굳이 타이포그래피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한글의 독보적인 특징 중 하나가 제자 원리다. 네모틀에 갇혀 있었던 자소들이 제자 원리에 맞게 틀을 벗어나면 자유로워진다. 틀 벗어나기(탈네모틀)는 한글 글자체의 혁명이다. 글자의 일부로만 작동했던 'ㄹ'이나 'ㅊ' 등이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자소의 '독립 만세'라고 하겠다. 탈네모틀 글자는 탈모던post-modernity의 실천이다. 알파벳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번안하는 '따라하기' 수준의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짝퉁일 뿐이다. 한글은 우리 영혼의 집, 한글의 본성이 살아 있는 구조미의 탐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글 박현택 연필뮤지엄 관장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했다.
쓴 책으로 『오래된 디자인』, 『보이지 않는 디자인』 등이 있다.

어디에서 작품을 구매해야 할까요

아트페어부터 옥션까지, 성공적인 컬렉션을 위한 팁

배가 고플 때면 배달 앱을 열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려운 결정을 내린 뒤엔 한 시간 이내에 빠르게 음식이 도착하고
 배달리 식사를 마칩니다. 내일 먹을 식재료가 떨어지면 밤 11시 이전에 주문하고
 다음 날 아침밥을 준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쇼핑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문하면 하루나 이틀 뒤엔 바로 집 앞으로 배송이 됩니다.
 쇼핑이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미술 작품은 어떻게 구입하면 될까요?

Internet, Artist, Gallery, Auction.



물론, 미술 작품도 인터넷 주문이 가능합니다(모든 작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요).

문제는 '무엇을 주문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쇼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발을 검색하면 다양한 브랜드 신발들의 판매처와 가격 비교는 기본, 심지어 찾는 사이즈의 재고 여부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작품을 구매할 때에는 검색 엔진에 무엇을 적어 넣어야 할까요? 좋아하는 작가나 원하는 작품이 있으면 작가 이름과 작품명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운이 좋으면 그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의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 작품의 특성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작품은 대량 생산에 의한 공산품처럼 온라인 쇼

핑화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술 작품 플랫폼인 Artsy.net나 Artnet.com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곳도 있지만, 모든 작품이 플랫폼에 올라와 있지 않고 아직 한국 작가의 작품은 많이 갖추고 있지 않아 좀 아쉽긴 합니다.

온라인이 완벽한 답이 아니라면 아래의 방법을 한번 참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째, 원하는 작가가 있다면 그 작가를 검색해서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의 연락 방법을 찾아봅니다. 여기에서 작가에게 연락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작가에게서 작품을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작가와 계약이 된 갤러리가 있는 경우에는 갤러리로 연락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좀 더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구입을 하고 싶다면 아트 페어를 추천합니다. 아트 페어는 갤러리나 작가

들이 일정 기간 큰 장소에 모여서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년 수십 개의 아트 페어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아트 페어는 가을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KIAF art seoul (Korea International Art Fair)가 있고 봄에는 화랑미술제, 부산에는 BAMA(Busan Annual Market of Art)와 아트부산이 있으며, 대구아트페어, 울산아트페어, 제주아트페어, 광주아트페어 등등 지역별로 아주 다양한 아트 페어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트 페어는 갤러리가 주축이 되어 참여하는 곳인지,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페어인지 등도 알고 가면 좋습니다.

두 번째,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는 작가와 장기 혹은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서 작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곳입니다. 서울은 삼

청동·인사동·청담동, 경기도 성남에는 분당 정자동에 갤러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상시 오픈인 곳이니 편하게 들러도 좋지만 기왕이면 네오룩, 아트허브 등의 전시 정보 플랫폼에서 작가와 작품 이미지를 미리 검색한 뒤 보고 싶은 전시 정보를 파악해서 가면 좋습니다. 전시 오프닝에 간다면 직접 작가를 만날 기회도 생길 수 있으니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옥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옥션은 소장자가 소장했던 작품을 경매 방식을 통해서 재판매하는 곳입니다. 여러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미리 보고 경매에 응찰해서 소장하는 방식이지요. 한국은 서울옥션, K 옥션, 헤럴드 아트데이처럼 컨템퍼러리 작품과 고미술을 같이 판매하는 곳, 또 고미술만 전문적으로 하는 옥션들도 있습니다. 옥션은 정해진 날짜에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리 현장·서면이나 전화·온라인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패들(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번호)을 받아서 참여해야 합니다. 작품은 경매 전 경매소에서 '프리뷰'라 일컫는 전시를 하기 때문에 미리 작품을 보고 상태를 체크하는 편이 좋습니다. 옥션 하우스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온라인 응찰도 가능하지만, 경매 시간에 맞춰서 응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트 딜러를 통한 거래나 소장자 직거래 등의 방법도 있지만, 첫 구입 시에는 갤러리와 옥션을 추천합니다.

갤러리나 옥션에서 작품 구입 의사를 밝히면 인보이스(invoice)를 받게 되는데요, 일종의 구매 확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작품 이미지와 캡션(작가명, 작품명, 재료, 사이즈, 제작년도), 가격과 입금

안내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인보이스에 작품의 액자와 배송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적으면 좋습니다. 구두로 "액자 해주기로 하셨는데요" "배송과 설치 포함 아닌가요?"라 하는 것보다는 구매를 진행할 때 가격과 제반 사항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고 그 내용까지 소상하게 인보이스에 적어놓으면 추후 감정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를 받은 뒤에는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의 방법으로 작품 대금을 송금합니다. 작품은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한 대신,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니 갤러리나 옥션하우스에 요청하면 됩니다. 작품 보증서(해당 작품이 작가의 진품임을 판매처가 보증해주는 문서)도 같이 요청하면 됩니다. 작품 보증서는 추후 작품의 진위 여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재판매 시

필요하니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작품 배송을 요청할 때에는 설치할 공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좋습니다. 벽면이 석고보드인지 콘크리트인지, 작품을 걸 수 있는 천장 레일 설치 여부 등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면 설치 시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작품 구입에서 가장 큰 부분은 예산이겠지요. 작품을 걸고 싶은 공간의 크기에 맞는 작품을 찾기 전에 먼저 가용 예산을 정해둔 뒤, 갤러리와 아트 페어, 옥션을 많이 보러 다니며 내 취향의 작품을 찾고 관련 정보를 먼저 수집한다면 첫 컬렉션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글 김종현 아트디렉터, Artdotz 대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뉴욕 킴스¹⁹⁹⁹ 갤러리 부디렉터, 퀸스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ARPNY의 디렉터(2013-2015)를 거쳐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일했다. 귀국 후 아트부산 2016 아트디렉터 등 다양한 미술 행사 진행은 물론 미술 시장에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상명대학교에 출강하며 해외 공모전 및 전시 전문 플랫폼 Artdotz를 운영하는 한편,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미술 애호가 및 컬렉터 과정>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스필버그식 네버랜드를 꿈꾸며

<레디 플레이어 원>과 <환상 교향곡>



레디 플레이어 원 2018
감독 스티븐 스피버그
출연 타이 세리트, 마크 라이런스 외



“현실은 시궁창 같고, 모두가 탈출을 꿈꾼다.” 가까운 미래를 다룬 SF 영화에는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다. 이를테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은 기계가 모두 알아서 하고, 인간들은 헤드셋을 머리에 뒤집어쓴 채 가상현실VR로 도피한다. 소수에게만 권력과 부가 집중되고 나머지는 밀바닥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심화되는 식이다. 스티븐 스피버그의 2018년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도 언뜻 그런 공식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당장 2045년 미국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의 첫 장면부터 그렇다. 무인 드론이 택배를 대신하고 인간들은 빈민가의 비좁은 트레이너 속에서 비디오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부모를 여의고 이모 집에 얹혀사는 주인공 소년 웨이드(타이 세리트) 역시 ‘게임 폐인’이기는 마찬가지다. 흡사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묘사한 SF 영화의 진부한 설정을 죄다 옮겨온 것 같지만, 이 영화에는 관객의 예상을 결정적으로 배반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색깔과 음악이다. 절망적 미래상을 그린 SF 영화에는 장대비 쏟아지는 도심의 밤거리처럼 빠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다. 하지만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밝고 화사한 화면이 두드러진다. 스피버그는 전작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채도를 떨어뜨려서 잿빛 톤을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가상 세계의 게임이 부각되는 후반부에 이를수록 화려한 총천연색의 색깔을 부각시킨다. 또 하나의 요소가 음악이다. 첫 장면부터 1980년대 미국 록 밴드 밴 헤일런의 히트곡 ‘점프 Jump’가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누른 것처럼 경쾌하게 흘러 나온다. 이 때문에 영화의 배경은 2040년대 미래인데도 음악만큼은 1980년대로 돌아간 듯한 복고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비지스와 조앤 제트 같은 흘러간 팝 명곡들이 흐르는 배경 음악뿐 아니라, 등장 인물들의 대사도 <슈퍼맨> <샤이닝> 같은 영화에

대한 인용들로 가득하다. 심지어 스피버그 자신이 제작과 연출을 맡았던 <백 투 더 퓨처>와 <주라기 공원>도 패러디의 대상이 된다. 어쩌면 첨단 기술로 구현한 미래 세계와 복고적 정서의 공존이야말로 이 영화의 가장 독특한 점일지도 모른다. 1972년생 시나리오 작가이자 소설가인 어니스트 클라인의 장편 데뷔작이 원작이다. 클라인은 10대 시절 게임 ‘던전 앤 드래곤’과 영화 <스타워즈>에 빠져 지냈던 전형적인 괴짜nerd였다. 또 다른 영화광 출신의 스피버그가 그 작품의 연출을 맡았으니 제 주인을 찾아가간 셈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도 <레디 플레이어 원>은 한 세대 차이의 작가와 감독이 서로 주고받는 연서와도 같았다.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현실 게임의 이름이 ‘오아시스’다. 이 게임의 개발자인 제임스 할리데이(마크 라이런스)가 숨겨놓은 3개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가상공간에서도 고군분투를 벌인다. 그 힌트를 찾기 위해 주인공들은 1980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걸작 공포 영화 <샤이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 장면에서 흐르는 선율이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마지막 5악장 ‘마녀들의 밤의 꿈 Songe d’une nuit du sabbat’이다. 이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이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들이 있다. 우선 <환상 교향곡> 자체가 작곡가 자신의 열병과도 같았던 사랑의 산물이라는 점이 다. 1827년 청년 베를리오즈는 파리에서 영국 극단의 세익스피어 연극 공연을 본 뒤 여주인공 역을 맡았던 배우 해리엇 스미드슨을 연모하게 됐다. 하지만 이 짝사랑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쓰디쓴 좌절의 경험이 낳은 자전적 걸작이 <환상 교향곡>이다. 교향곡에서 작곡가의 분신인 예술가 청년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지만, 죽는 대신 깊은 잠에 빠져든다. 꿈에서 청년은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단두대로 끌려가고, 장례식이 열리자 마녀들이 모여서 괴성을 지르며 광란의 파티를 벌인다. 어찌 보면 기괴하고 황당무계하지만, 영화가 또 다른 영화로 이어지고 가상 속의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설정과도 닮았다. <환상 교향곡>의 마지막 5악장에 흐르는 선율은 죽은 자들을 위한 중세 진혼 미사곡인 <레퀴엠> 가운데 ‘분노의 날 Dies Irae’에서 가져왔다. “분노의 날이 오면 세상은 재로 변하리라”는 무시무시한 가사를 통해서 유한한 인간의 숙명을 상기시킨다. 이 선율은 큐브릭 감독의 걸작 <샤이닝>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원곡의 합창이나 관현악이 아니라 성전환을 한 미국의 현대음악 작곡가 웬디 카를로스의 신시사이저 편곡 버전이다. <샤이닝>에서 이 음악은 주인공의 광기와 핏빛 공포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스피버그는 <샤이닝>의 장면과 음악을 통해서 거장 큐브릭에 대한 경의를 드러냈다. <이티.E.T.> <후크> <에이아이.이.> <레디 플레이어 원>까지 스피버그의 영화에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동심이 어른들의 비정한 논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도 가상현실 게임의 창시자인 할리데이는 수수께끼 같은 힌트를 건넨다. “거꾸로 가보는 건 어때? 최대한 빠르게 거꾸로 페달을 밟는 거야. 반드시 앞으로만 갈 필요는 없어.” 이처럼 얼마든지 역주행이 가능한 영화야말로 동심의 세계로 회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스피버그의 영화는 영원히 나이 들지 않는 피터 팬의 네버랜드와도 같다.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모차르트』 『바이블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문화의 양조장

의외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하위문화의 향연

Berlin

세계에서 가장 힙한 도시라 불리는 베를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도시의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예측 불가능한 개성으로 가득 찬 베를린의 거리, 혹은 미술관, 클럽 같은 곳들을 몇 군데 방문해보면 그 답을 금방 알 수 있다.



베를린 쿨투어브라우어리 전경
원래는 양조장이었으나 19세기 이래로 변화를
거듭해 오늘날의 문화 공간으로 정착했다



- 1 우파파브릭에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공연 및 예술가들이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 2 마을로 들어서는 메인 통로
- 3 옥상에서 바라본 마을은 다양한 컬러들로 활기찬 모습이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개방성, 관용성,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삶', 단순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미션이었다

베를린은 한두 가지의 '주류' 문화가 도시를 지배하지 않는다. 수많은 문화예술적 실험들이 용인되며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하위문화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베를린을 베를린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산실들이 베를린 곳곳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공간이 탄생하게 된 과정 역시 획일적인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적·예술적 시도들을 적극 수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이곳에서 발산되는 창의적인 에너지만큼이나 개성적인 공간들이 생겨나게 됐다.

재생건축의 대담한 여정

그중 하나가 서베를린 지역에 위치한 우파파브릭Ufafabrik이다. 이곳은 원래 우파 영화 제작소UFA Film lab가 있던 장소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영화 제작소가 서독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서베를린에서 이 부지를 매입했지만 특별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애를 먹고 있었다. 그렇게 5천 평의 공간이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1970년대 초의 어느 날, 시민들에 의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이름하여 '문화와 스포츠, 공예를 위한 공장Factory for Culture, Sports and Crafts'. 시민들은 문화와 건강, 환경에 대한 대안을 꿈꾸며 일과 여가가 공존하는 삶을 제시했다. 냉전 시대 수많은 자본이 서베를린 사람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에 저항하는 반문화가 싹트던 것이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는 우파 영화 제작소의 버려진 땅을 조금씩, 평화롭게, 하지만 대담하게 차지해 나갔다. 우파 영화 제작소 건물 대부분은 1950년대 산업 건축의 전형이었다. 평평한 지붕에는 타르칠이 돼 있었고 포장된 면으로 둘러싸인 단지는 건조한 공기와 먼지로 가득했다. 여름이면 치솟는 온도에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아이디어를 냈다. 그것은 바로 '건물 녹화 프로그램'이었는데, 건물 옥상에 토착 식물들로 정원을 꾸미고 벽면에는 덩굴 식물이 자라도록

해 초록빛의 파사드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지금이야 낯설지 않은 풍경이지만 우파파브릭에서 건물 녹화를 시작한 것은 무려 1980년대의 일이었다. 그 밖에도 이곳에서는 태양열 발전, 빗물을 재활용한 식수, 수초를 이용한 폐수 정화 등 다양한 친환경적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지역의 미기후를 개선하고 동식물들에게 새로운 서식처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1986년, 드디어 베를린시와 50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우파파브릭의 라이프스타일이 자리를 잡게 됐다. 어린이 놀장과 놀이터, 학교, 자연식 가게, 유기농 베이커리와 제과점, 각종 예술 작업실, 야외극장, 게스트하우스, 카페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개방성, 관용성,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삶', 단순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미션이었다. 현재는 200여 명의 직원들과 3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주거, 고용, 문화 활동 등 삶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고 있다. 베를린 시민들은 우파파브릭의 성공이 신나치즘이 창궐하고 경제 불황과 환경 파괴 등 연일 우울한 소식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 뜻깊은 사건이었다고 회상한다.

동베를린, 문화 재생의 거점

서베를린에 우파파브릭이 있다면 동베를린에는 쿨투어 브라우어라이KulturBrauerei가 있다. 거대한 광장을 중심으로 둘러싸인 건물들에 전시장과 공연장, 카페, 클럽 등이 들어와 있는 대규모 복합 문화 단지다. 이 공간의 이름을 번역하면 '문화 양조장'이라는 뜻이 되는데, 짐작할 수 있듯이 1960년대까지 슈타이스Schultheiss라는 맥주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1967년 맥주 양조장이 문을 닫은 후 어떤 건물들은 도매 가구점이나 스포츠 카지노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다 이곳에 1970년, 그 유명한 프란츠 클럽이 문을 열면서 베를린의 밤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날이 연일 이어졌고, 더불어 실험적인 예술 활동들도 다양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방치

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이 장소가 본격적으로 지역 문화재생의 거점이 된 것은 1991년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이 설립되면서부터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숄타이스 맥주 양조장이 아닌 '쿨투어브라우어라이'라고 공식 명칭이 바뀌었고 1998년부터는 대대적인 확장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면서 철저히 기존 외관을 유지하는 것을 고수했는데, 1878년에 지은 이 양조장 건물은 당대 가장 유명한 건축가였던 프란츠 하인리히 슈베히텐의 작품으로 1974년에 등재된 역사 기념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옛 벽돌 파사드의 역사적인 아우라와 동시대 문화예술의 열광적인 에너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독특한 공간이 됐다. 덕분에 사람들은 이곳이 단지 핫한 문화 이벤트를 즐기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장소임을 실감한다. 특히 벽면에 남아 있는 옛 표지판들을 보며 각각의 건물들이 원래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현재의 풍경과

겹쳐 상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베를린 도시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인 동시에 19세기 베를린 산업 건축물이 잘 보존된 기념비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도시 개발의 지속 가능성

홀츠마르크트Holzmarkt는 베를린의 프리드리히샤인Friedrichshain 지역에 있었던 목재 시장 자리에 만들어진 '도시 마을urban village'이다. 이곳은 '모두를 위한 슈프레강변Spree bank for all'이라 불리기도 한다. 홀츠마르크트는 '목재 시장'이라는 뜻으로, 실제 이 장소는 300년 전 목재를 거래하던 시장 자리였다. 이후에는 시 소유의 황무지로 버려져 있다가 2012년부터 재생 사업이 진행되며 특별한 문화 지구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전에도 여러 개성적인 하위문화 집단에서 이 버려진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왔는데 그것이 결국 홀츠마르크트가 새로운 장소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 역사의 시작이 된 셈이었다. 임시로 만들어진 판



그렇게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베를린 도시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인 동시에 19세기 베를린 산업 건축물이 잘 보존된 기념비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 1 숄타이스 맥주의 오래된 로고.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
- 2 쿨투어브라우어라이에서는 항상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벌어진다

잣집과 텐트, 비어 있던 공장 건물에서 창의적인 클럽 문화가 약 10년간 꽃피었지만, 홀츠마르크트의 실험은 얼마 못 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던, 베를린 도시 개발 역사상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미디어슈프레 Mediaspree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미디어슈프레 프로젝트는 슈프레강을 따라 미디어 및 통신 기업 단지를 조성하고 주변 일대 재개발을 목표로 하는, 시 정부 주도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다. 미디어슈프레 사업으로 인해 그 전까지 버려져 있었거나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부지에 사무실 빌딩이며 호텔 등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섰다. 홀츠마르크트 부지 역시 경매

에 부쳐졌지만 시민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대응했다. 결국 뜻이 맞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 땅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들은 미디어슈프레 프로젝트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임시적인 사용, 일반 사람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지향했으며 한번 계획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놓은 열악한 공간 속에서도 거침없이 피어났던 하위문화의 향연은 장기적인 비전하에 새롭게 태어날게 됐다. 홀츠마르크트 협동조합은 슈프레강변에 자리 잡았던 삶의 방식과 커뮤니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도시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는 흐름을 만들



1



2

어갔다. 이 장소에 깃든 실험 정신은 새로운 도시 개발 방법을 개척해 나가는 밑거름이 된 듯했다. 홀츠마르크트의 건축 전략은 '홀과 오두막(Halls and Huts)'으로 설명 가능하다. 우선 이곳에는 4개의 홀 hall이 있다. 이것은 홀츠마르크트라는 '도시 마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물이다.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되 홀츠마르크트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수용하도록 군더더기 없이 디자인됐다. 반면 오두막huts은 홀의 앞이나 옆, 위에 덧대어져 보다 개성적이고 맞춤형의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홀과 오두막 전략을 통해 홀츠마르크트는 고정돼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주되는 도시 문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며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장소가 될 수 있었다. 그 어떤 새로운 시도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홀츠마르크트에는 작은 상점,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 클럽, 유치원, 레스토랑, 작업실 등이 들어왔고, 슈프레강변의 녹지를 시민들에게 합법적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현재 홀츠마르크트에서는 400여 명의 시민들이 저마다 다른 개성적인 활동들로 이곳의 일상을 채우고 있다. 이들은 경험과 문화를 나누고 또 그에 대해 토론을 한다.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일터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여가를 즐기는 휴식 공간이다. 이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즐거움이 있는 동시에 바쁜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매력적인 도시 공간이란 시민들의 커뮤니티, 문화, 일과 여가, 이 모든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라는 시민들의 이상이 결코 꿈이 아님을 보여주며, 홀츠마르크트는 베를린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 개

발의 사례로 남았다. 이러한 대안 문화 공간들은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수익성이 중요한 부동산 개발의 영역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여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곤 한다. 우파 영화 제작소 부지나 술타이스 맥주 양조장, 목재 시장이 있었던 슈프레강변은 시에서 주도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깔끔하지만 무미건조한 경관으로 덮여씩워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베를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생겨난 문화 공간에서 피어나는 다양성의 가치를 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인 형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부끄럽고 비극적인 역사

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던 베를린이 지금처럼 힘하고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또 자유롭게 쌓아 올린 문화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그 어떤 도시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개성 넘치는 에너지가 있는 베를린. 그런 무형의 창의성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유형의 공간들이 있어 베를린은 언제나 또 새로운 도시 문화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가 된다.

글 김재나 작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기연구원, 아트센터나비 등 다양한 곳에서 문화 전반을 다뤘다. 이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지역문화가 활용되는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조경학 석사와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문화로 도시 읽기』가 있다.

1,2 슈프레강을 따라 도시와 베를리너들의 삶이 공존한다. 이곳에서는 홀츠마르크 협동조합의 실험 정신이 완성한 새로운 도시 개발의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2022 마리네 콘서트

MUSIC FROM 'THE FAIREST' ISLE

2022년 3월~12월(총10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6월 16일(목)
스코틀랜드의 독일인

멘델스존 / 핑갈의 동굴
브루흐 / 스코틀랜드 환상곡
멘델스존 / 교향곡 3번 A단조, Op. 56 "스코틀랜드"

★

성남시립교향악단
지휘 최영선
바이올린 이지혜

7월 21일(목)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다

월튼 / 대관식 행진곡
월튼 / 비올라 협주곡
브리튼 /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이병욱
비올라 김세준

• SEONGNAM •

BEYOND



- 76 예술가의 작업실
묵묵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연희공방 음마깡깡 대표 음대진
- 82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 84 캘린더



DAEJIN EUM

묵묵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연희공방 음마갱깽 대표 음대진

성남시은행동의작은골목, 모퉁이어귀에 자리한 상가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연희공방 음마갱깽의 작업실 겸 연습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오래된 독서실을 개조했다는 이 공간에서 가장 시선이 가는 곳은 우리 전통 인형극인 '덜미'가 탄생하는 인형 작업실. 한구석에 가득 쌓인 목재, 목공소를 연상시키는 수십 종의 도구는 물론 눈코입의 부위별로 깎인 조각들이 눈길을 끈다. 모두 연희공방 음마갱깽을 이끄는 음대진 대표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오브제들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는 대대로 민족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대표적인 전통 연희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흔히 꼭두각시놀음으로 통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 인형극 '덜미'는 바로 남사당놀이를 구성하는 여섯 마당 중 하나. 남사당놀이 이수자이자 전통 연희 집단 '연희공방 음마갱깽'의 대표로 전통 인형극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음대진 대표는 인형 제작과 창작, 연출 모두를 아우르는 전통예술 분야의 멀티 크리에이터다.

연희공방 음마갱깽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음마갱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우리 전통 연희를 바탕으로 한국 전통 인형극 '덜미'를 연구·창작하고, 연희의 전통과 해학을 유지하며 현대 감성으로 풀어내는 단체입니다. '음마갱깽'은 소리 '음'과, 어루만질 '마'를, 즉 '소리를 어루만져 음악을 만든다'는 의미, 대장간에서 나는 의성어 '갱깽'은 공연을 위한 오브제를 만든다는 의미죠. 저를 포함한 단원 대부분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출신으로, 2016년 창단 이후 총 13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덜미'라는 명칭이 일반인에게는 아무래도 생소한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흔히 '남사당 꼭두각시놀음'이라 불리는 덜미는 우리 문화재로는 유일한 전통 인형극입니다. 덜미 인형은 하반신과 하악(팔꿈치)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대접이, 즉 인형을 쥐는 사람에 따라 살아 있는 듯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해요. 우리 전통 음악과 연희자들의 재담조에 가장 이상적인 동작을 보여주고, 음악을 타며 탈짓을 할 때 투박미에서 나오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가득하죠. 외국 인형과 비교하면 좀 거친 외양에 내부 장치도 부족하지만 우리네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인형이 아닌가 싶어요. 작품에 모든 희로애락을 담을 수 있다는 것, 현장 관객의 특징에 따라 그날의 무대와 공간과 객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역시 전통 인형극의 장점입니다.

전통 연희 분야 중에서도 덜미 연구자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덜미를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고모할머니가 판소리 인간문화재셨어요. 어머니는 가야금을 연주하셨고 친누나도 판소리를 했죠. 돌아보면 자연스레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자라났던 것 같아요. 당시 스승님께 남사당놀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덜미와 버나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를 치렀는데, 군대를 다녀오니 그사이 버나는 많이 전파된 반면 여전히 덜미 분야는 연구자가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자칫 전통이 끊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더 관심이 갔고,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죠. 당시엔 연희자들 사이에서도 인형극이 널리 보급된 상황은 아니다 보니, 제대로 하려면 직접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뜻 맞는 7명이 음마갱깽을 시작하게 됐어요.

연희공방 음마갱깽의 활동 이력을 보면, 창단 이후 꾸준히 심 없는 노력의 행보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남사당놀이 중 박첨지 놀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꼭두, 80일간의 세계일주>라든가, <박첨지와 함께하는 연희와 놀자> <음마갱깽 인형극장> 등 음마갱깽만의 레퍼토리로 다양하고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의미 있었던 작업은 2020년에 진행한 <황해도 장연 지역의 꼭두각시극 복원 및 재현>이었어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전통 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대본 채록본과 인형 6점의 사진을 토대로 우리 전통 인형극을 직접 복원했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업에 선정되어도 갑작스러운 취소가 많아서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에도 계속 작품을 만들고 공방에서 인형 작업을 이어갔어요. 단원들과 항상 틀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매년 한두 편은 신작을 내놓으려고 하죠. 전통 인형극과 창작 인형극 모두 꾸준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남사당놀이의 마지막 순서로 유일한 민속 인형극인 덜미는 '목덜미를 쥐고' '몸뚱이를 쥐고' 놀린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사방을 포장으로 가리고 전연이 무대가 되는 공간을 통해 인형을 놀리며, 주조종자인 '대접이'가 중심이 되고, 양옆에 '대접이보'가 앉아 등퇴장을 돕는다. 포장 밖 무대 면을 향하여 비스듬한 앞자리에 대접이와 재담을 주고받는 소리꾼인 산반이가 앉고 그 옆에 뿔과리, 징, 북, 장고, 날라리 등의 짚이(악사)가 앉아 놀이를 진행시킨다. 지배층의 지배 구조와 그 횡포에 대한 저항, 피계승에 대한 풍자를 통한 외래 종교 비판, 서민들의 우직한 관념 등을 희화화해 표현한다(출처: 문화포털 www.culture.go.kr)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형을 직접 제작하고 계시지요? 달미 인형을 직접 제작하는 예술 단체는 민간에서는 거의 드물다고 들었어요. 인형이 탄생하기까지 제작 공정도 궁금한데요.

꼭두각시 달미의 경우 인형의 성별과 성격에 따라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있으면 캐릭터를 잡기가 좀 더 수월한데, 제 경우 관상 책을 참고하기도 해요. 비뚤어진 성격이라면 코를 비튼다거나 말 많은 캐릭터는 입을 크게 표현하는 식으로, 얼굴에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넣는 거죠. 완성된 디자인은 나무에 도판을 옮겨 붙여요. 전통 목조각은 대개 오동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수종을 쓰지만, 인형 작업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마티카라는 수입목도 많이 사용합니다. 장대 인형은 얼굴부터 손잡이까지 일체형이에요. 얼굴 윤곽을 따고 코를 중심으로 조각하죠. 입이나 안구가 움직이는 구조라면 전체 얼굴을 먼저 완성한 뒤 뒤통수를 파내고, 어깨판과 팔을 만든 뒤 마지막으로 의상을 제작합니다. 가난뱅이 캐릭터라도 의상의 원단 자체는 질 좋은 천을 사용해야 극의 전체적인 미감과 완성도가 좋아요. 초반에는 인형 하나 만드는데 두 달이 걸렸는데 지금은 밤을 새우면 며칠 만에 만드는 정도로 익숙해졌죠. 교육 시에는 일단 전통 방식에 따라 달미를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각자 만들고 싶은 창작 인형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스케치부터 제작 방법과 마감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인형 제작은 물론이고 다루는 기술과 연기력까지 모두 갖춰야 가능한 분야가 덜미인 듯합니다. 전통 인형극이 좀 더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점 때문일까요?

일단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 부릴 수 있는 이도 없는 상황일까요. 연희 분야 후배들도 아직 인형극의 진정한 매력을 잘 몰라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 서는 입장에서는 소고놀이를 비롯해 화려한 기예의 연희극을 선보일 때 현장의 뜨거운 호응,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가 주는 짜릿한 즐거움이 있는데, 인형극은 그에 비하면 아무래도 잔잔한 분위기거든요. 동문 후배들에게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지만, 아직 환경 설정이 안 되다 보니 지속적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진 않죠.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무대에 서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음마깡깡도 예외는 아니셨을 텐데요,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디셨는지요?

팀이 두각을 나타낼 즈음 코로나19가 닥쳤어요. 여러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제 좀 잘되겠다 싶던 시점이었었는데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죠. 첫 1년은 어찌어찌 버텼지만 2년차부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업은 선정되었는데 거리두기는

EUMMA: ENJOY ULTIMATE MUSIC & ART

작품에 모든 히로애락을 담을 수 있다는 것,
현장 관객의 특징에 따라
그날의 무대와 공간과 객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역시 전통 인형극의 장점입니다

계속되고, 공연은 하지 못하고... 당연히 경영에 위기가 왔어요. 또 공연 취소로 신작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인형 제작자 입장에서 어느 순간 손이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죠. 공방에 출근하면 입 100개, 눈 100개 식으로 무조건 뭐라도 하나씩 깎자고 결심했어요. 그 일과를 지켜오다 보니 이제는 한데 모아 전시해도 될 정도로 오브제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올해부터는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죠. 그동안 잘 견뎀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만큼 버틴 것도 음마깡깡의 경쟁력이다 싶습니다.

작업과 연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규모를 생각하면, 팬데믹 시기 동안 임대료 등 공간 운영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성남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단체)을 위해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성남 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모>를 진행 중인데, 연희공방 음마깡깡도 선정되었다고 들었어요. 예술 단체 입장에서 체감하시는 장점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역의 예술인들에게는 실질적이고 절실한 지원이죠. 지난해 이런 지원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2022년에는



- 1 연희공방 음마깡깡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2 연희공방 음마깡깡의 작업실이자 음대진 대표의 창작공간. 이곳에서 전통 달미 인형이 탄생한다

4월부터 11월까지 월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에도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커요. 저희와 같은 민간 예술 단체에는 재단의 이런 지원이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참 많은 의지가 됩니다. 덕분에 창작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지역의 청년 예술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죠. 성남과는 어떤 인연을 갖고 계신가요?

성남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어요. 수정구에서 초중고를 다녔죠. 대학 진학 뒤에는 서울에서 자취를 했는데, 자취집을 놔두고 굳이 막차 타고 성남에 와서 잤던 기억이 나요(웃음). 여러모로 성남은 제게 특별한 곳이죠. 성남문화재단과도 다양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으로 매년 성남의 초등학교에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참 즉각적이고 뜨거워서 매년 저희도 신이 나요. 위례스토리박스에서는 지난해 일반인 대상 <주부 인형극단> 프로그램을 선보였고요. 당시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라 불가피하게 아주 소규모로 진행했던 아쉬움이 큰데, 올해는 하반기에 가족 대상으로 새롭게 재개할 계획입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억에 남는 성과, 보람과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문득 돌아보니 이만하면 전시회를 열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인형이 많아졌더군요. 전통 예술 분야 지원사업에 인형극 분야가 생긴 것도 혹 저희 활동이 나름대로 계기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은근히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사업적으로는 크게 나아진 부분은 없지만, 멈추지 않고 노력하다 보니 저희를 기억해주는 곳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 창단 이후 팀원이 한 명도 떠나지 않았다는 점도 팀으로서 큰 성과입니다. 때론 의견 차이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단기간에 금방 상업적인 공연을 만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함께 저변을 넓혀갈 젊은 제작자들의 부재는 여전한 아쉬움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 <노래숲을 지켜줘>라는 복합극 무대와 더불어 신작 제작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전통 연희, 인형극 분야에서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후배 신생 단체들이 생겨난다면 선배로서 진심 어린 도움을 주며 이끌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드넓은 땅에 전통 인형극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교육의 산실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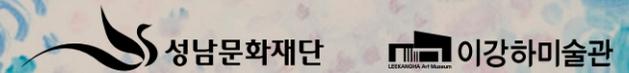
1 연희공방 음마쟁쟁이 진행한 <황해도 장연 지역의 꼭두각시극 복원 및 재현> 작업
2 음마쟁쟁 작업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인형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사진 최재우

공 共 존 存

박인선 박화영 신희섭
유지원 이조흠 최정주

2022.5.27 FRI - 7.10 SUN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성남문화재단 최현희 경영본부장(우)과 국립오페라단 박형식 단장

성남문화재단, 국립오페라단과 업무협약 체결

성남문화재단과 국립오페라단이 국내 공연예술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4월 21일(목) 오후 2시 국립오페라단에서 성남문화재단 최현희 경영본부장과 류성근 예술사업본부장, 국립오페라단 박형식 단장, 최장현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성남문화재단과 국립오페라단은 올해 오페라 공동 제작과 상반기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하반기 <라보엠> 등 두 편의 오페라 공연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 성남시 학생을 대상으로 성남아트리움에서 국립오페라단 공연 무료 관람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성남문화재단 최현희 경영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오페라 작품 공연으로 성남 시민들의 높은 문화 욕구 충족에 한층 더 기여하고, 특히 성남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우수한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신상진·이경화 후원회원 신규 가입

성남아트센터 후원회(회장 박지향)에 신상진·이경화 후원회원이 철쭉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다. (재)유엔젤보이스 예술감독, 과천시립예술단 총괄 단장으로 활동 중인 신상진 후원회원은 "문화예술을 누리는 삶이 곧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후원회를 통해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후원에 관심을 갖고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경화 후원회원은 계원예술고등학교 무용부장, 국립무용단 단원을 거쳐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교수, 성남문화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경화 회원은 "지역의 예술가이자 교육자, 또 성남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며 성남 문화예술의 방향성과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오랫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고민해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문화예술계 상황을 직접 체감하는 예술인으로서, 후원회 활동을 통해 성남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그 예술을 사랑하는 동호인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길을 함께하고 싶다"고 후원회 활동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가입 문의: 031-783-8033



이경화(좌) 신상진 후원회원

듀오 리사이틀

서선영 X 고성현
소프라노 바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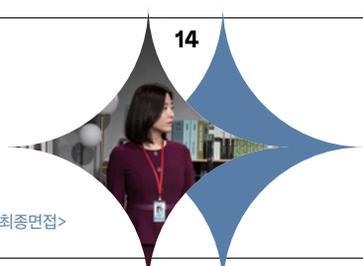
Soprano Sun Young Seo
Baritone Seng Hyoung Ko
DUO RECITAL

2022. 6. 29 wed 7:30pm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티켓 R석 4만원 S석 3만원 시야장애석 1만원 | 입장연령 8세 이상 문의 031.783.8000 |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6

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이영은 첼로 독주회 (19:30)	2 ☎ 힐링사운드 (19:30)	3 ☎ 뮤지컬 <레베카> (19:30)	4 ☎ 뮤지컬 <레베카> (14:00, 19:00) ☎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해설 음악회 (19:30)
5 ☎ 오페라하우스 ☎ 콘서트홀 ☎ 앙상블시어터 ☎ 미디어홀 ☎ 성남큐브미술관 ☎ 반달갤러리 ☎ 상설전시실 ☎ 성남문화재단 기획공연-전사-프로그램						
5 ☎ 뮤지컬 <레베카> (14:00, 19:00) ☎ 코리아 크리스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필름뮤직콘서트 (19:00)	6	7 ☎ 유미정 박미정 피아노 듀오 (19:30)	8 ☎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 독립예술영화관 <원 세컨드> (19:00)	9	10 ☎ 2022 Theatre 이문세-성남 (19:30)	11 ☎ 2022 Theatre 이문세-성남 (18:00) ☎ 제이엘 체임버 콰이어 정기연주회 (20:00) ☎ 연극만원 <최종면접> (14:00, 18:00)
12 ☎ 연극만원 <최종면접> (14:00, 18:00)	13	14 연극만원 <최종면접> 	15 ☎ 제24회 성남창작무용제 (19:30) ☎ 무료기획상영 <심 스트리트> (14:00) ☎ 독립예술영화관 <어나더 라운드> (19:00)	16 ☎ 마티네 콘서트 (11:00) ☎ 미스엘(Mis.L)의 <리듬 in 마림바콘서트> (19:30)	17 ☎ 2022 분당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18 ☎ 오페라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15:00) ☎ 합창단 음악이있는마을 정기연주회 (17:00) ☎ 2022 '한여름 밤의 꿈' (16:30)
19 ☎ 오페라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15:00) ☎ 허시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18:00)	20	21 ☎ <슈만, 사랑을 노래하다>- 시인의 사랑 & 여인의 사랑과 생애 (19:30)	22 ☎ 유엔젤보이스와 함께하는 기업콘서트 (19:30) ☎ 가천대학교 성악과 가곡&앙상블의 밤 (19:30) ☎ 독립예술영화관 <언어가 잠든 집> (19:00)	23 ☎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9:30) ☎ 춤추는 여인 (19:30)	24 ☎ 신파악극제 (15:00)	25 ☎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11:00,14:00,16:30) ☎ 신파악극제 (15:00)
26 ☎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11:00,14:00) ☎ 상드린 피오 & 에릭 르 사주 (17:00) ☎ 아베크피아노앙상블 정기연주회 (15:00)	27	28 ☎ 이육규 피아노 독주회 (14:00)	29 ☎ 성남시립합창단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19:30) ☎ 무료기획상영 <서칭 포 슈가맨> (14:00) ☎ 독립예술영화관 <전쟁의 피아니스트> (19:00)	30 ☎ 성남시립합창단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19:30)		☎ 소프라노 서선영 & 바리톤 고성현 듀오 리사이틀 

성남큐브미술관

전시명	전시기간	장소
2022 지역예술가교류전 1 <공존#7>	5월 27일~7월 10일	☎ 상설전시실
2022 동시대미감전 <식물키우기>	5월 27일~7월 3일	☎ 기획전시실
2022 성남중진작가전 1 <문종훈: 현>	6월 3일~7월 24일	☎ 반달갤러리

갤러리808

전시명	전시기간
제4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5월 31일~6월 11일
제58회 경기서예문화인화 대전	6월 15일~6월 25일
제52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	6월 28일~7월 12일

※ 전시 관람 시간 : 오전 10시~ 오후 6시 (월요일 휴관)



곽이근기
오페라<시월피아> 공연의 기억 지도



REBUILT 갤러리 건축을 읽다
문화의 영조장, 박복남



예술가의 작업실
간담을 나누는 공간, 세토 유키리



• PLANTS

06

07

POSTCARD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휴대폰

이메일



아트뷰 Art & Culture Magazine 2022년 06-07

아트뷰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m.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아트뷰> 담당자 앞

1 3 5 1 4

①— <아트뷰>를 어디에서 만나셨나요?

②—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③— 앞으로 <아트뷰>에서 읽고 싶은 주제나 내용은 무엇입니까?

④— <아트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이나 바라는 점을 적어주십시오.

<아트뷰>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께는 해당 호 <아트뷰>를 발송해드립니다.

<아트뷰>는
성남아트센터 관객, 시민 여러분을 위한
문화예술 매거진입니다.
성남아트센터 시설 곳곳에서 언제나
<아트뷰>를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시 이메일(nam@snart.or.kr)이나
전화(031-783-8024)로 연락 바랍니다.
• 별도의 개인 정기구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와 전자책 서점 리디북스에서 <아트뷰>를 만나보세요.
<아트뷰>를 무료 잡지 콘텐츠로 제공합니다.